경북 경제동향

GyeongSangBuk-Do Economic Trends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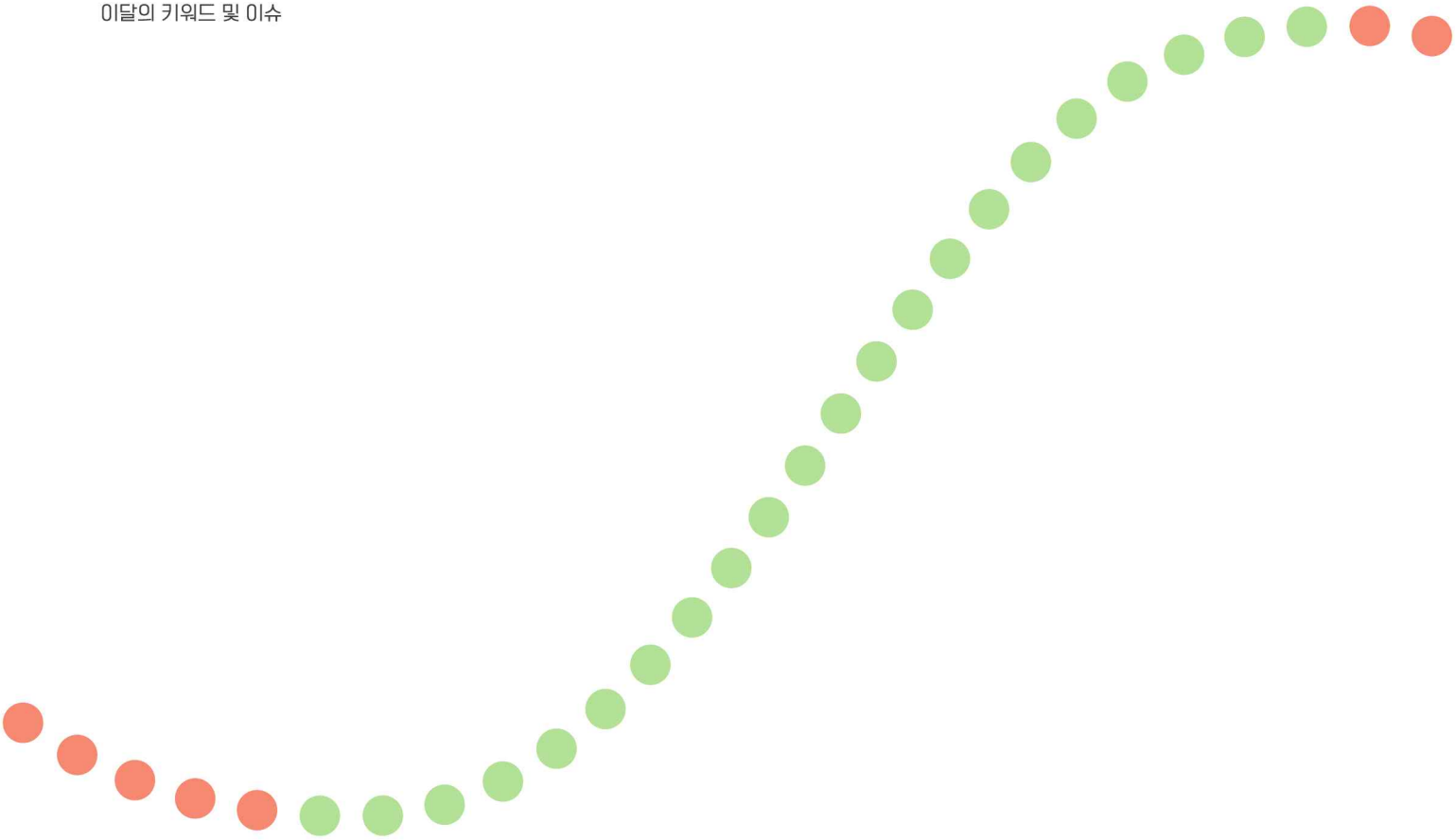
2022

경제동향 개관

경기, 생산, 소비, 투자,
건설, 교역, 고용, 물가,
금융, 부동산, 중소기업

BIG DATA

이달의 키워드 및 이슈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대구경북연구원 DAEGU GYEONGBUK INSTITUTE

12

2022

경북 경제동향

GyeongSangBuk-Do Economic Trends

경북경제동향 개관 3

1. 경기 13
2. 생산 15
3. 소비 18
4. 투자 20
5. 건설 21
6. 교역 23
7. 고용 24
8. 물가 27
9. 금융 28
10. 부동산 30
11. 중소기업 33

BIG DATA 34

1. 이달의 키워드 34
2. 이달의 이슈 37

개관 경북 경제동향

구 분	항 목	기준월
경 기	경기종합지수	22.10
	BSI	22.12
생 산	광공업생산지수(생산, 출하, 재고)	22.11
	서비스업생산지수	
소 비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22.11
	신용카드사용액	22.09
투 자	자본재수입액	22.11
건 설	건축허가면적	22.11
	건축착공면적	
	건설수주액	
교 역	수출액	22.11
	수입액	
고 용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22.11
	고용률 / 실업률	
	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물 가	소비자물가지수	22.12
	생활물가지수	
금 융	가계대출액	22.10
	주택담보대출액	
	기업대출액	
부 동 산	주택가격지수	22.11
	아파트가격지수	
	주택매매거래량	
중소기업	어음부도율	22.11
	부도업체수	
	신설법인	2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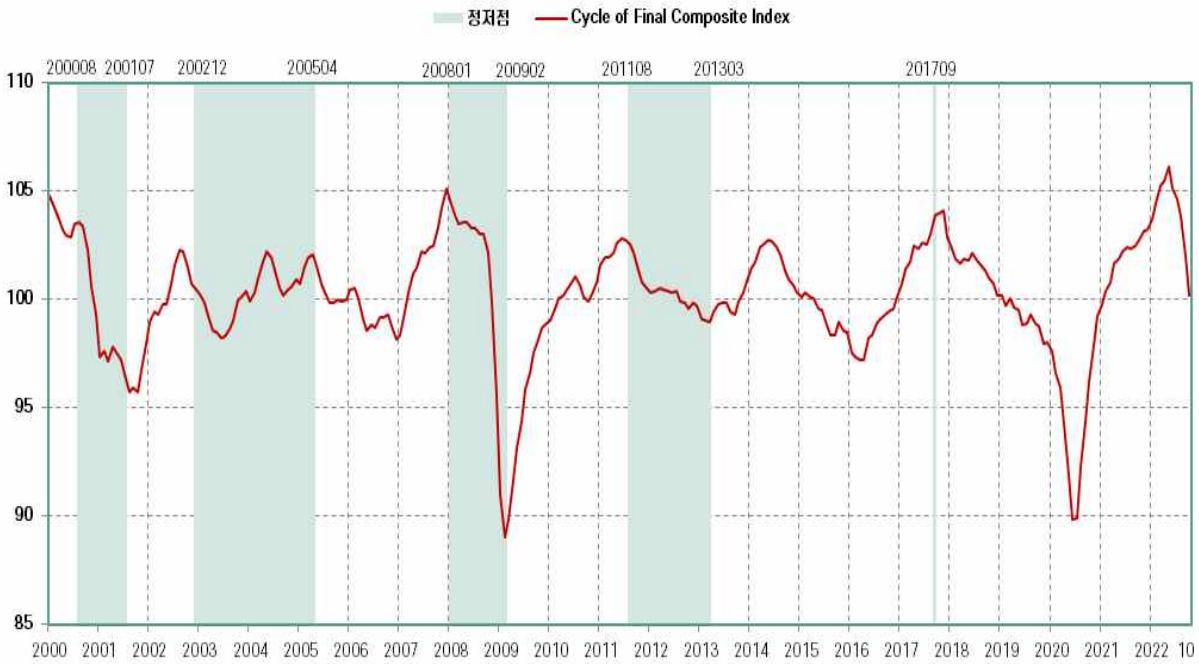
총괄

경북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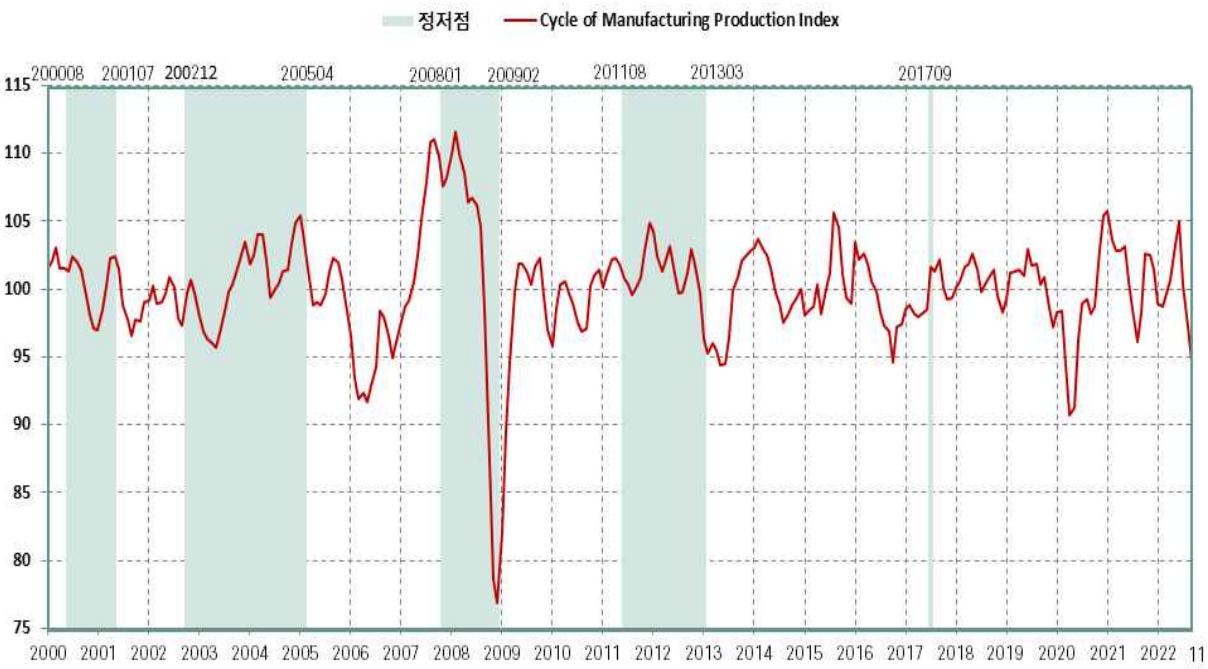
경 기	• 중국·EU 등 주요 시장의 수요 둔화에 의해 경북 철강제품 및 스마트폰 수출은 감소한 반면 2차전지용 기타정밀화학원료의 수출은 증가, 내수시장은 소비심리 위축 지속, 3개월 연속 비상근근로자 취업 감소세
생 산	• 광공업생산은 자동차, 기계장비 등의 업종은 증가했지만 1차금속 업종이 감소
소 비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부진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하락
투 자	• 자본재수입은 전기·전자기기, 수송장비의 수입은 증가, 기계류와 정밀기기 및 기타 자본재의 수입은 감소
건 설	• 건설수주액은 신규주택, 기계설치, 숙박시설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하락
교 역	• 11월 수출액,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하락
고 용	• 취업자수는 농림어업(3만 3천 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만 8천 명) 등에서 증가했으나, 제조업(−2만 2천 명)에서 급감 • 자영업자 상승세 지속, 임금근로자 상승세 소폭 둔화
물 가	•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7월 정점을 찍은 후 전월과 동일한 전년동월대비 5.3% 상승,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물가상승에 기여 • 전년대비 도시가스(14.9%), 전기료(12.9%), 상수도료(2.4%) 등 에너지 요금 상승
금 융	• 가계대출은 전년동월대비 하락, 주택담보대출 및 기업대출액은 상승
부 동 산	• 아파트매매가격은 안동(3.2%)을 제외한 경산(−3.5%), 구미(−1.6%), 포항(−1.5%)은 하락, 주택매매거래량 감소세 지속, 미분양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중소기업	• 어음부도율 전년동월대비 감소, 신설법인수 감소

순환변동치 경제지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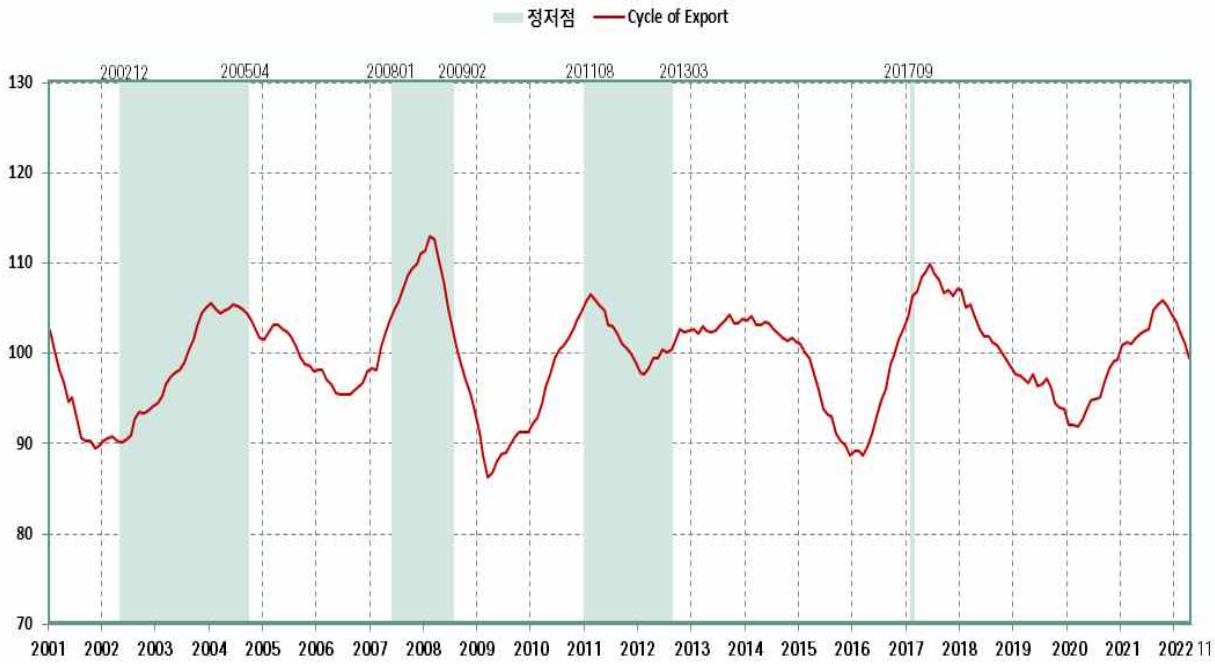
경북 동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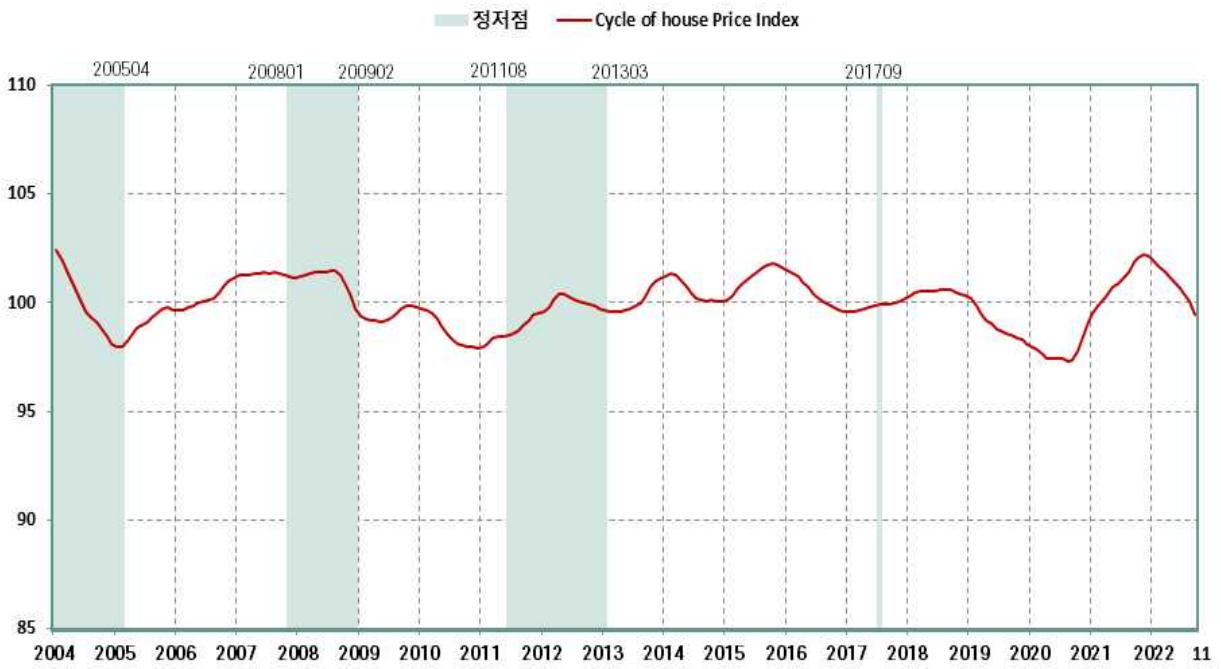
제조업생산지수



수출액



주택매매가격지수



Infographics

경기

전월대비 증감

경기종합지수(10월)

동행종합지수
98.3

1.8%

1.8p

순환변동치
100.2

기업경기실사지수(12월)

제조업
57

11p

8p

비제조업
73

중소기업 가동률(11월) 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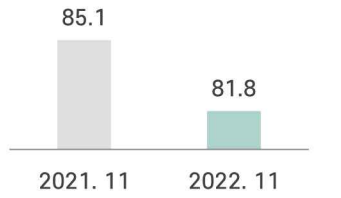
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감

광공업생산지수(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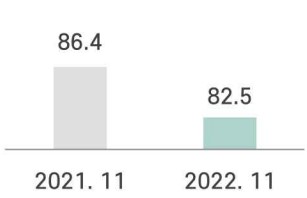
생산
81.8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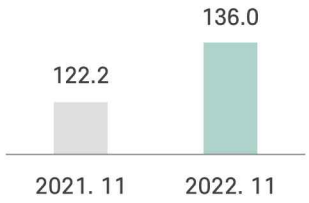
출하
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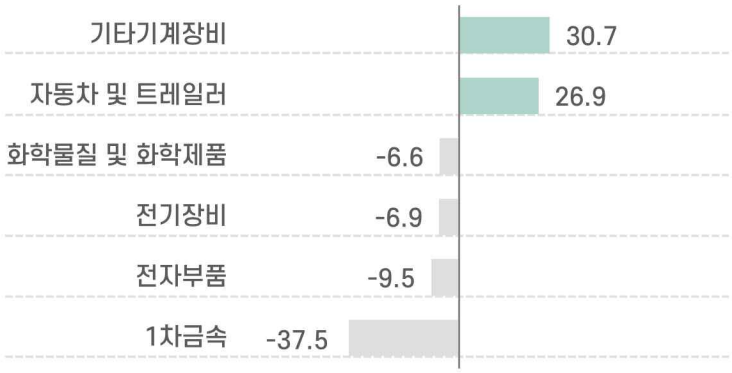
4.5%



재고
136.0

11.3%





주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2. 이미지출처 : FLATIC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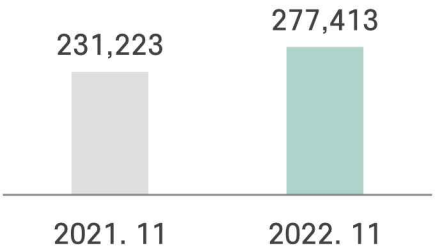
소비

전년동월대비 증감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11월)	신용카드사용액(9월)	자동차신규등록대수(11월)
73.8	1조 2,034억 원	7,269대
6.0% ▼	9.4% ▲	17.6% ▲



투자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본재수입액(11월)

2억 7,741만 달러

20.0% ▲

건설

전년동월대비 증감

건축물허가면적(11월)	건축물착공면적(11월)	건설수주액(11월)
337,317㎡	650,782㎡	6,853억 원
55.1% ▼	39.8% ▼	2.7% ▼

교역

전년동월대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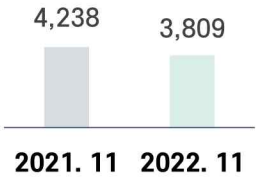
수출입동향(11월)

수출액
38.09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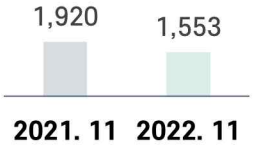
10.1%

19.1%

수입액
15.53억 달러



무역수지
22.57억불
흑자



무선통신기기	8.9%	▼
철강판	22.6%	▼
정밀화학원료	246.6%	▲

석탄	5.3%	▼
정밀화학원료	142.4%	▲
철광	32.0%	▼

고용

전년동월대비 증감

고용동향(11월)

15세 이상 인구
232만 6천 명
1만 6천 명 ▲

경제활동인구
151만 4천 명
5만 3천 명 ▲

- **취업자** 148만 4천 명 / 4만 7천 명 ▲ — **고용률** 63.8% / 1.6%p ▲
- **실업자** 3만 명 / 6천 명 ▲ — **실업률** 2.0% / 0.4%p ▲

비경제활동인구
81만 2천 명
3만 7천 명 ▼

실업급여자수 25,559명

- **임금근로자수** 93만 명 / 2만 5천 명 ▲
- **자영업자수** 43만 1천 명 / 2만 6천 명 ▲

OPEN

물가

전년동월대비 증감

소비자물가조사(12월)

소비자물가지수 110.24	5.3%	5.8%	생활물가지수 111.39
식료품및 에너지제외지수 106.69	4.1%	1.2%p	기대 인플레이션율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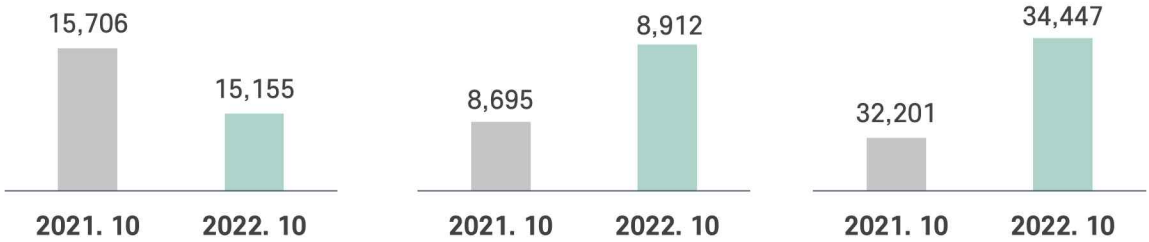
오락 및 문화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 음식 및 숙박 | 기타상품 및 서비스 |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 교통

금융

총 50조 원

전년동월대비 증감

가계대출액(10월)	주택담보대출액(10월)	기업대출액(10월)
15조 1,550억 원	8조 9,120억 원	34조 4,470억 원
3.5% ▼	2.5% ▲	7.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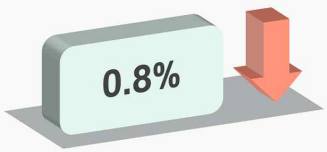
부동산

전년동월대비 증감

매매가격지수(11월)

주택
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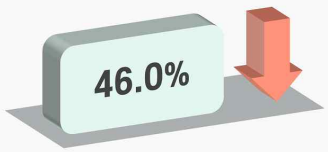




아파트
102.7

부동산거래현황(11월)

주택매매거래량
2,174호





미분양주택
7,667호

중소기업

해당월 수치

어음부도율(11월)



0.31%

부도업체수(11월)



1개

신설법인수(10월)



255개

경기

10월 경북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1.8% 하락

10월
동행지수 전월대비
하락

✓ 동행종합지수는 98.3으로 전월대비 1.8% 하락, 순환변동치는 100.2로 전월차 1.8p 감소

- 구성지표 중 비농가취업자수(−0.3%), 대구경북제조업업황BSI(−0.4%), 제조업전력사용량(−4.2%),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불변)(−3.4%), 수출액(실질)(−1.6%), 수입액(실질)(−12.5%)은 감소, 생산자제품출하지수(중간재)(0.2%)는 증가

10월 국내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2% 상승

✓ 동행종합지수는 123.7로 전월대비 0.2% 상승, 순환변동치는 102.4로 전월차 보합

- 구성지표 중 서비스업생산지수(0.2%), 건설기성액(2.7%), 수입액(2.3%)은 전월대비 상승, 광공업생산지수(−2.2%), 내수출하지수(−0.9%) 전월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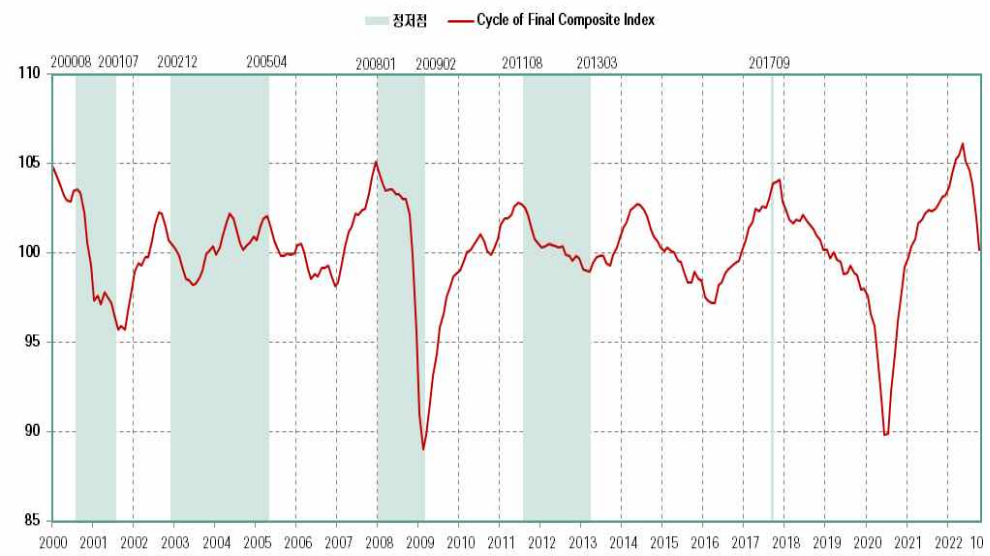
경기종합지수

(2015=100)

구 분		2022					
		05	06	07	08p	09p	10p
경북	동행종합지수	104.1	103.2	102.7	101.9	100.1	98.3
	전월대비(%)	0.8	−0.9	−0.5	−0.8	−1.8	−1.8
	순환변동치	106.2	105.1	104.6	103.8	102.0	100.2
	전월차(p)	0.8	−1.1	−0.5	−0.8	−1.8	−1.8
전국	동행종합지수	121.0	121.4	122.2	123.1	123.4	123.7
	전월대비(%)	0.2	0.3	0.7	0.7	0.2	0.2
	순환변동치	101.2	101.3	101.8	102.3	102.4	102.4
	전월차(p)	0.1	0.1	0.5	0.5	0.1	0.0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임.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경북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 순환변동치

: 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같은 추세 속에 있어도 단기적인 변동의 속도가 주기적으로 등락하는 순환변동을 원자료에서 계절, 불규칙, 추세요인을 제거한 뒤 순환변동 요인을 나타낸 지표

12월 제조업 BSI는 57, 비제조업 BSI는 73

✓ 제조업 업황BSI는 57로 전월대비 11p, 2023년 1월 업황 전망BSI는 61로 5p 각각 감소

- 매출BSI는 64로 전월대비 9p, 2023년 1월 전망은 68로 8p 각각 감소
- 생산BSI는 81로 전월대비 1p, 2023년 1월 전망은 84로 4p 각각 증가
- 채산성BSI는 67로 전월대비 3p, 2023년 1월 전망은 68로 3p 각각 감소

12월 제조업 BSI, 전월대비 감소 비제조업 BSI 증가

✓ 비제조업 업황BSI는 73으로 전월대비 8p, 2023년 1월 업황 전망BSI는 63으로 6p 각각 증가

- 매출BSI는 93으로 전월대비 12p, 2023년 1월 전망은 81로 2p 각각 증가
- 채산성BSI는 81로 전월대비 16p, 2023년 1월 전망은 72로 4p 각각 증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기준치=100)

구 분	2022								2023
	05	06	07	08	09	10	11	12	01
제조업 BSI	89	75	67	69	65	73	68	**57**	–
	(93)	(90)	(71)	(66)	(72)	(70)	(73)	**(66)**	**(61)**
비제조업 BSI	77	74	80	78	73	79	65	**73**	–
	(81)	(75)	(73)	(75)	(67)	(71)	(72)	**(57)**	**(63)**



주 : ( )는 전월에 조사된 해당월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022년 12월 대구경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 기업경기조사지수 (Business Survey Index ; BSI) : 경기예측방법의 하나로서 경기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 이에 대비한 계획서 등을 설문서를 통해 조사, 수치화하여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자 사용하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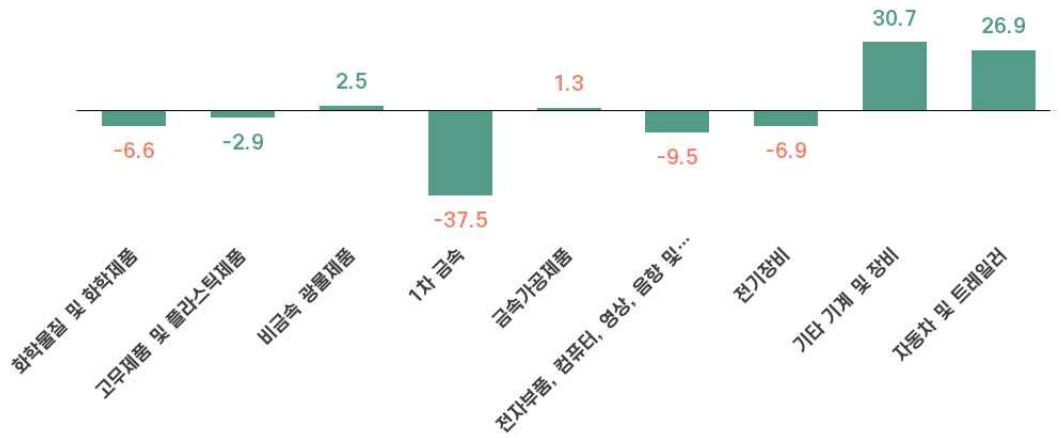
생산

11월 광공업생산지수는 81.8로 전년동월대비 3.9% 하락, 전월대비 1.1% 상승

11월
광공업 생산, 출하,
전년동월대비 하락
재고 증가

✓ 광공업생산지수는 자동차, 기계장비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1차금속, 전자부품, 화학제품 등에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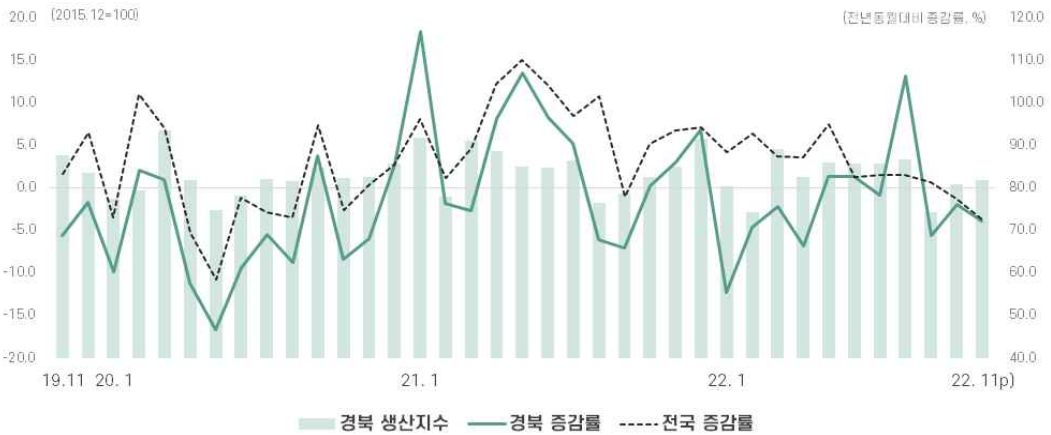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생산에서 자동차(26.9%)는 자동차부품에서 증가, 기계장비(30.7%)는 무한궤도,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기계, 금형 등에서 증가
- 1차금속(−37.5%)은 스테인리스강판, 선재, 중후판 등에서 감소, 전자부품(−9.5%)은 휴대용전화기, DDL(DisplayDriverLc), LCD편광필름 등에서 감소
- 화학제품(−6.6%)은 반도체용식각제, 선형폴리에스터수지, 폴리에스터섬유 등에서 감소



광공업생산지수

(2015=100, 단위 : %)

2021	2022						
연간	05	06	07	08	09	10p	11p
85.0	86.0	85.8	85.7	86.7	74.3	80.9	81.8
(−3.7)	(1.3)	(1.3)	(−0.8)	(13.2)	(−5.6)	(−1.9)	(−3.9)



★ 광공업생산지수

: 산업 생산 활동에 대해 광업, 제조업, 전기 및 가스업을 대상으로 매월 생산 수량을 조사하여 작성되는 지수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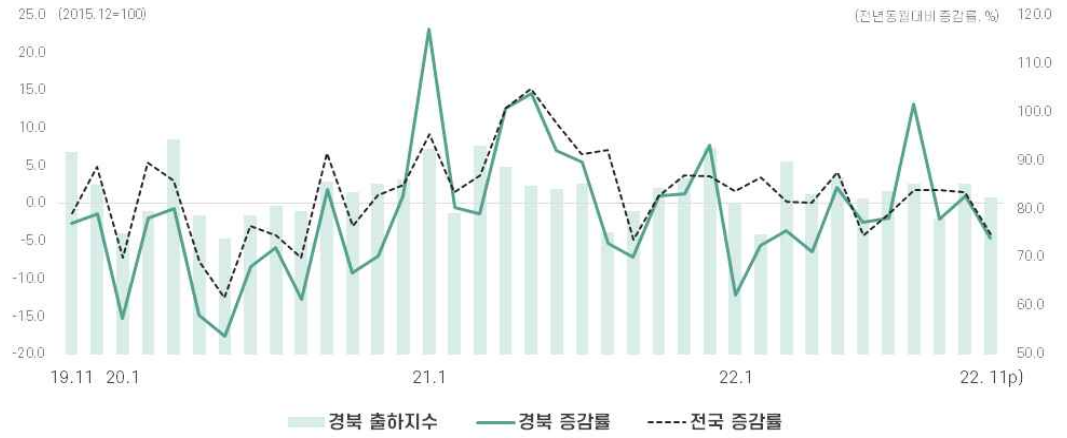
광공업제품출하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5%, 전월대비 3.2% 각각 하락

- 전년동월대비 출하는 자동차(27.4%), 기계장비(15.9%), 고무 및 플라스틱(9.7%) 등이 증가, 전자부품(−20.0%), 1차금속(−11.1%), 화학제품(−12.8%) 등이 감소

광공업제품출하지수

(2015=100, 단위 : %)

2021	2022						
연간	05	06	07	08	09	10p	11p
85.5	86.5	82.1	83.6	85.2	78.0	**85.2**	**82.5**
(4.5)	(2.1)	(−2.5)	(−1.9)	(13.1)	(−2.0)	**(1.1)**	**(−4.5)**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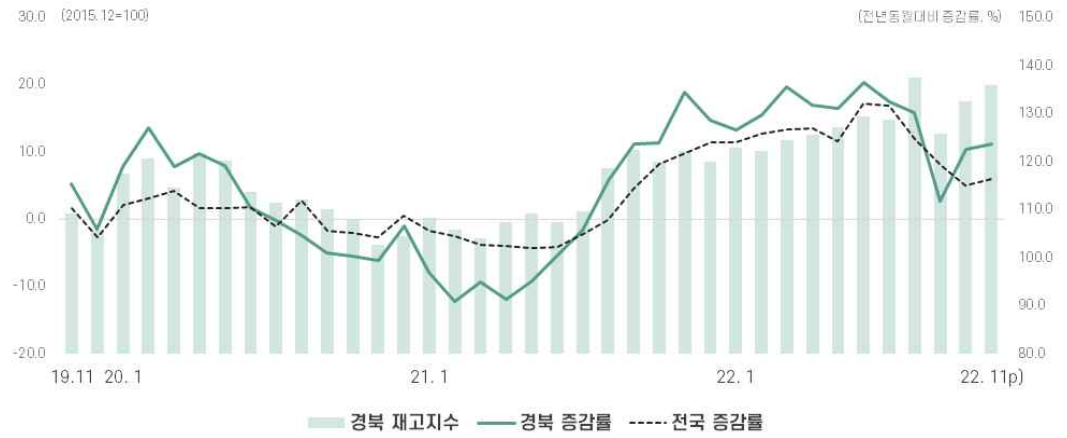
광공업제품재고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1.3%, 전월대비 2.6% 각각 상승

- 전년동월대비 재고는 전자부품(32.3%), 기계장비(45.4%), 화학제품(23.1%) 등이 증가, 1차금속(−19.3%), 전기장비(−3.8%), 나무제품(−12.8%) 등이 감소

광공업제품재고지수

(2015=100, 단위 : %)

2021	2022						
연간	05	06	07	08	09	10p	11p
120.1	127.3	129.4	128.7	137.5	125.9	**132.5**	**136.0**
(14.8)	(16.5)	(20.1)	(17.4)	(15.9)	(2.8)	**(10.4)**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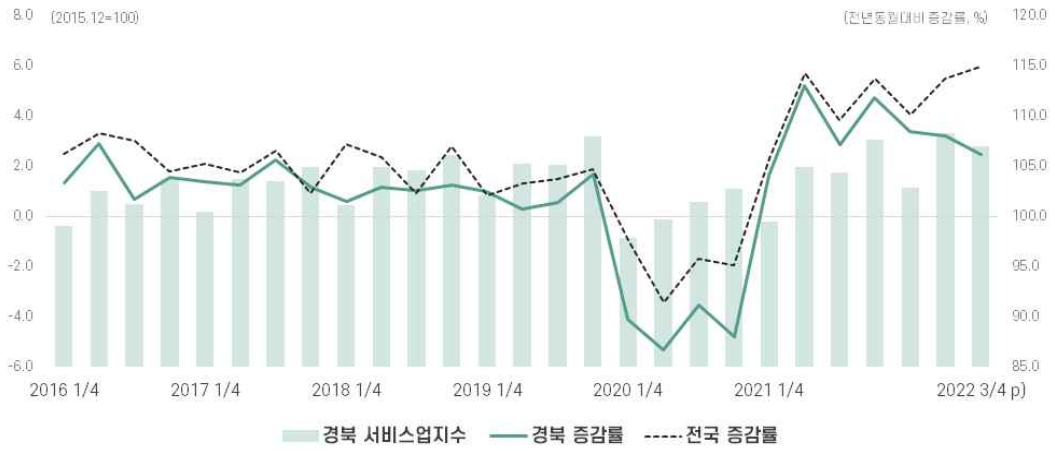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3/4분기 서비스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2.5% 상승, 전분기대비 1.2% 하락

서비스업생산지수

(2015=100, 단위 : %)

2020	2021				2022		
4/4	1/4	2/4	3/4	4/4	1/4	2/4p	3/4p
102.8	99.5	104.8	104.3	107.7	102.9	**108.3**	**107.0**
(-4.8)	(1.6)	(5.1)	(2.8)	(4.8)	(3.4)	**(3.2)**	**(2.5)**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기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서비스업생산지수

: 서비스업의 성장세를 가늠하는 지표로 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업종의 생산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수

소비

11월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6.0%, 전월대비 5.3% 각각 하락

11월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전년동월대비 하락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73.8로 전년동월대비 6.0% 하락

- 전국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100.8로 전년동월대비 4.5% 하락
- 경북 대형마트판매액지수는 72.4로 전년동월대비 5.0% 하락
- 전년동월에 비해 음식료품, 가전제품은 증가, 기타상품, 오락·취미·경기용품, 의복, 화장품, 신발·가방은 감소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2015=100, 단위 : %)

구분	2021	2022						
	연간	05	06	07	08	09	10p	11p
대형 소매점	85.8 (3.9)	84.4 (−3.8)	80.2 (1.0)	89.1 (−9.5)	87.9 (3.3)	84.6 (−9.6)	**77.9 (−11.1)**	**73.8 (−6.0)**
대형마트	88.0 (2.2)	83.2 (−6.4)	78.9 (−3.2)	91.5 (−11.9)	92.7 (1.8)	85.2 (−11.8)	**74.1 (−14.6)**	**72.4 (−5.0)**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9월 신용카드사용액은 1조 2,034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4% 상승

✓ 기타(44.3%), 숙박·음식(18.3%) 등의 사용액은 증가했으나, 여행·교통(−19.5%), 가구·가전(−14.9%)의 사용액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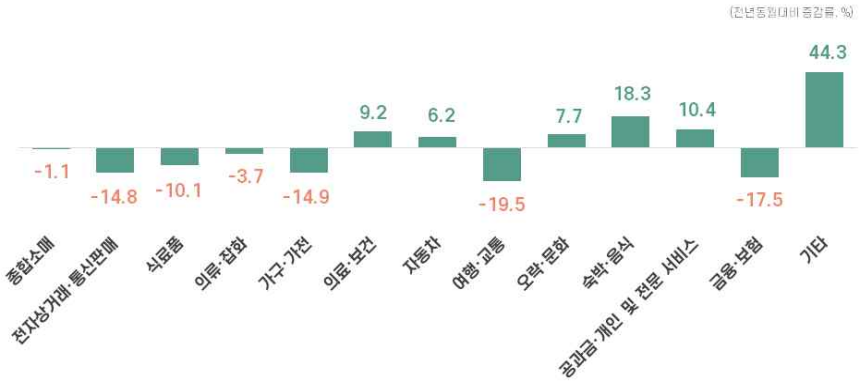
- 종합소매(−1.1%)의 사용액 감소, 숙박·음식(18.3%)의 사용액 증가
- 종합소매(−1.1%) 사용액 중 전년동월대비 백화점(4.8%), 편의점(12.6%)의 사용액은 증가했지만 대형마트/유통전문점(−4.7%), 슈퍼마켓(−3.2%)의 사용액 감소
- 숙박·음식(18.3%) 사용액 중 숙박(19.7%), 음식점(18.3%)의 사용액 모두 증가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 대형소매점(매장면적 3천㎡ 이상 점포)의 월평균 판매액 지수

신용카드사용액

(단위 : 십억 원, %)

2022							
02	03	04	05	06	07	08	09
976.0	1,142.3	1,233.3	1,360.1	1,289.8	1,325.2	1,335.6	**1,203.4**
(10.8)	(12.9)	(22.0)	(24.9)	(22.0)	(16.4)	(19.7)	**(9.4)**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별 소비유형별 신용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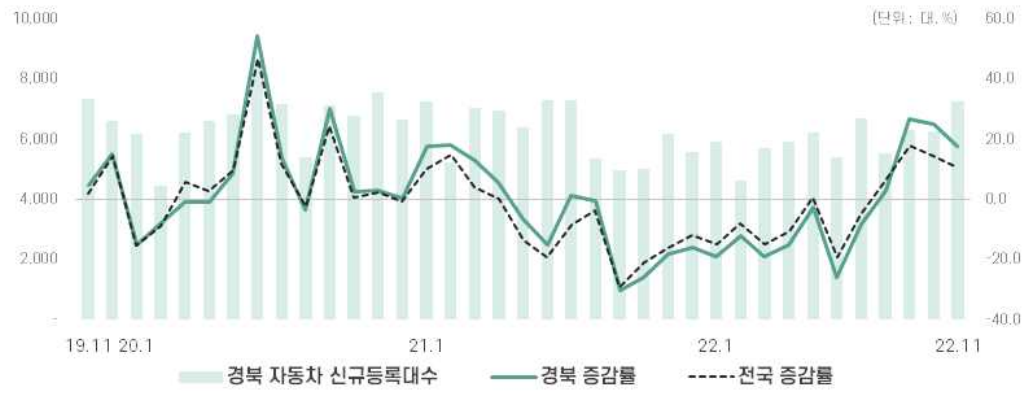
11월 자동차 신규등록대수는 7,269대로 전년동월대비 17.6% 상승

- 신규등록대수는 신차 출고 적체가 일부 해소되면서 전년동월대비 상승

자동차 신규등록대수

(단위 : 대, %)

2021	2022						
연간	05	06	07	08	09	10	11
74,558	6,223	5,382	6,684	5,526	6,315	6,281	**7,269**
(-6.2)	(-2.7)	(-26.0)	(-8.1)	(3.0)	(26.6)	(25.0)	**(17.6)**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현황보고"

구분	합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2020	79,482	60,412	1,948	16,404	718
2021	74,558	54,933	1,206	17,432	987
2022. 05	6,223	4,448	96	1,601	78
06	5,382	3,816	95	1,372	99
07	6,684	4,861	103	1,624	96
08	5,526	3,960	86	1,411	69
09	6,315	4,637	74	1,509	95
10	6,281	4,450	92	1,657	82
11	7,269	5,422	131	1,627	89

투자

11월 자본재수입액은 277,413천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0.0% 상승

11월
자본재수입액
전년동월대비 상승

- 내용품목별로는 전기·전자기기(59.7%), 수송장비(16.6%)는 증가한 반면, 기계류와 정밀기기(−4.2%), 기타(−38.8%)의 수입은 감소
- 전기·전자기기 중 발전기(4,558.8%), 유선통신기기(1,324.2%), 전자관류(282.6%)의 수입은 증가
- 수송장비는 화물자동차(82.4%), 항공기(26,216.7%), 선박(75.5%)의 수입 증가
- 기계류와 정밀기기 중 가열 및 건조기(655.2%), 제분 및 제품기계(547.8%)의 수입은 증가했지만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장비(−80.0%), 금속공작기계(−53.2%), 기타의 기계(−41.9%)의 수입이 감소

자본재수입액

(단위 : 천 달러, %)

2022							
04	05	06	07	08	09	10	11
221,684	232,375	244,452	259,167	332,893	225,384	209,400	**277,413**
(4.7)	(8.1)	(7.0)	(1.2)	(64.8)	(3.8)	(−14.0)	**(20.0)**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 자본재수입액

: 경기선행지수의 구성지표로 재료, 원료, 기계, 설비 등의 수입액

건설

11월 건축물허가면적, 건축물착공면적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하락

11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건축물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55.1% 하락한 337,317㎡

- 용도별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모두 감소
- 주거용은 전년동월대비 85.4% 감소한 45,445㎡, 상업용은 29.8% 감소한 110,488㎡, 공업용은 67.2% 감소한 34,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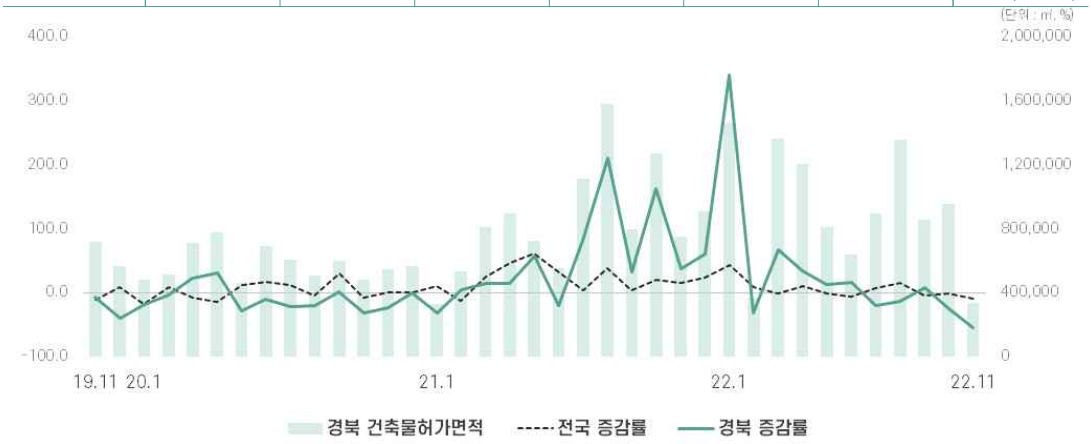
✓ 건축물착공면적은 전년동월대비 39.8% 하락한 650,7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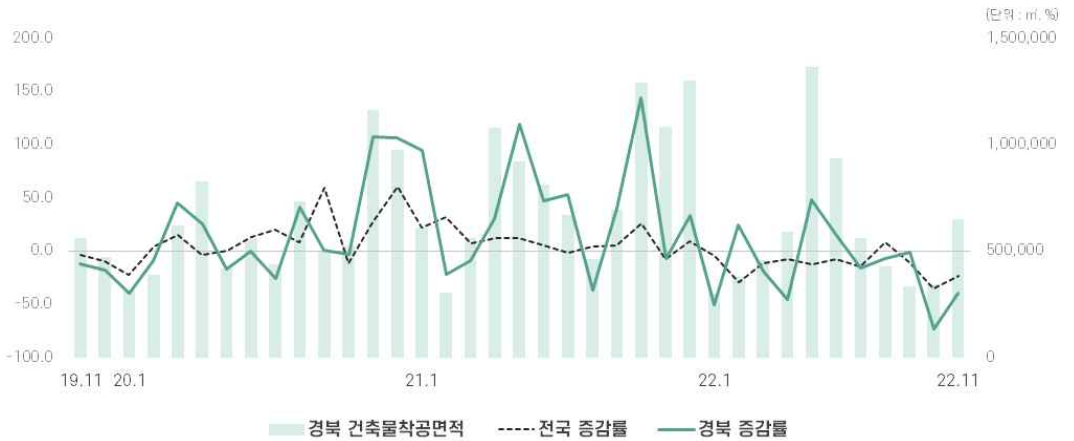
- 용도별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모두 감소
- 주거용은 전년동월대비 43.5% 감소한 368,939㎡, 상업용은 15.5% 감소한 86,900㎡, 공업용은 전년동월대비 38.7% 감소한 108,987㎡

건축물허가면적 및 건축물착공면적

(단위 : ㎡, %)

구분	2022						
	05	06	07	08	09	10	11
건축허가면적	812,458 (12.1)	639,980 (15.6)	893,707 (−19.5)	1,360,089 (−13.9)	854,544 (7.5)	954,549 (−24.9)	**337,317** **(−55.1)**
건축착공면적	1,365,713 (48.5)	935,881 (14.9)	563,404 (−15.8)	427,408 (−7.4)	689,296 (−0.7)	343,817 (−73.3)	**650,782** **(−39.8)**





★ 건축허가면적

: 건설(건축/토목)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 건축착공면적

: 건설경기 동행지표로서 공사가 실제로 착수된 면적을 집계한 수치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건설수주액은 685,317백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7%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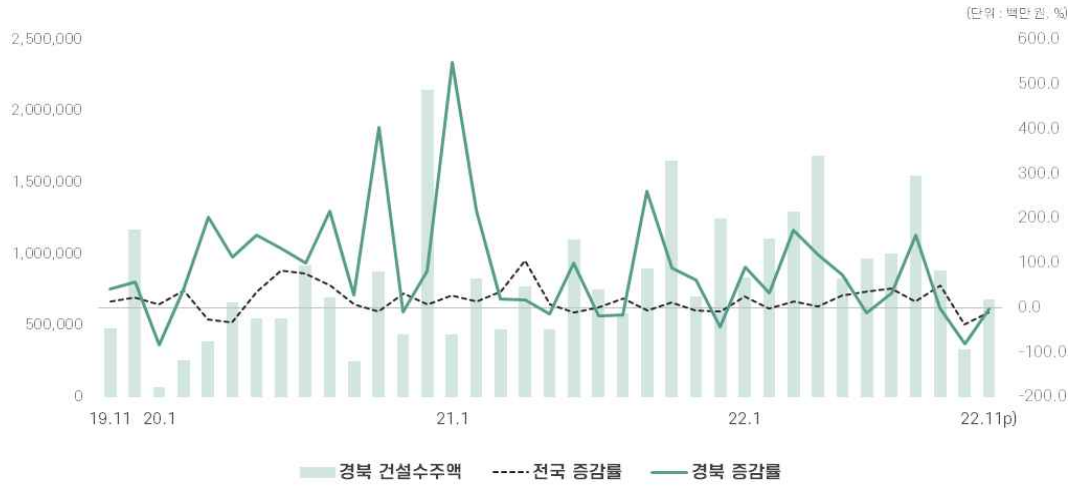
✓ 건설수주액 감소는 신규주택, 기계설치, 숙박시설 등의 수주 감소 영향

- (공종별) 건축부문 116,859백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2.9% 하락, 토목부문 568,458백만 원으로 107.4% 상승
- (발주자별) 공공부문 140,363백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0.8% 상승, 민간부문 544,954백만 원으로 7.4% 하락

건설수주액

(단위 : 백만 원, %)

2021	2022						
연간	05	06	07	08	09p	10p	11p
9,943,926	827,288	969,234	1,003,529	1,547,440	886,930	**336,950**	**685,317**
(27.2)	(73.2)	(−12.2)	(32.8)	(163.4)	(−1.3)	**(−79.6)**	**(−2.7)**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건설수주액**

: 국내 일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발주자가 제시하는 건설공사물을 건설업체가 완공해주기로 한 것에 대한 쌍방간의 계약에 대한 금액

교역

11월 수출액 및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하락

11월 무역수지 2,257백만 달러 흑자

✓ 수출액은 3,809백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1%, 수입액은 1,553백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9.1% 각각 하락, 무역수지는 2,257백만 달러 흑자

✓ 수출금액이 높은 품목은 무선통신기기(−8.9%), 철강판(−22.6%), 정밀화학원료(246.6%),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49.4%) 등[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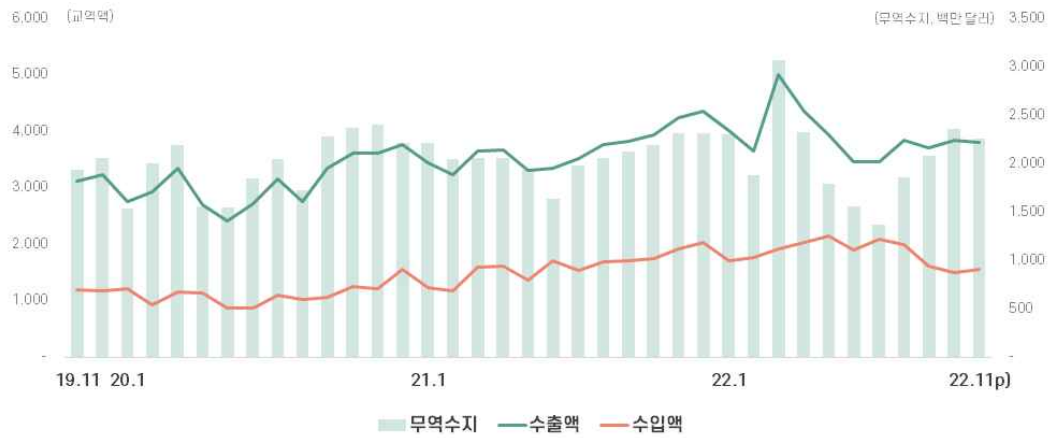
- 수입금액이 높은 품목은 석탄(−5.3%), 정밀화학원료(142.4%), 철광(−32.0%), 알루미늄(−31.4%) 등
- 수출금액에 따른 주요 수출 국가는 중국(−5.7%), 미국(−24.0%), 일본(−4.5%), 베트남(−14.4%) 순

✓ 포항시 2022년 11월 화물수송은 3,760,877톤(R/T)으로 외항 3,075,703톤(R/T)

교역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22						
	05	06	07	08	09p	10p	11p
수출액	3,940 (19.4)	3,455 (3.4)	3,469 (−1.4)	3,849 (2.4)	**3,700** **(−3.4)**	**3,849** **(−2.4)**	**3,809** **(−10.1)**
수입액	2,146 (56.4)	1,894 (10.9)	2,096 (36.1)	1,991 (17.3)	**1,617** **(−5.2)**	**1,491** **(−14.7)**	**1,553** **(−19.1)**
무역수지	1,794	1,560	1,373	1,859	**2,083**	**2,358**	**2,257**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1)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고용

11월 경제활동인구는 151만 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 상승

✓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5만 3천 명(3.7%)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는 81만 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 하락, 전월대비 2.3% 상승

11월 고용률 63.8%로 전국평균 상회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 명, %)

2021	2022						
연간	05	06	07	08	09	10	11
1,457	1,539	1,530	1,517	1,513	1,509	1,528	**1,514**
(−1.4)	(4.0)	(4.3)	(2.9)	(4.1)	(2.8)	(3.6)	**(3.7)**

주 : ( )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는 148만 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 상승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만 7천 명(3.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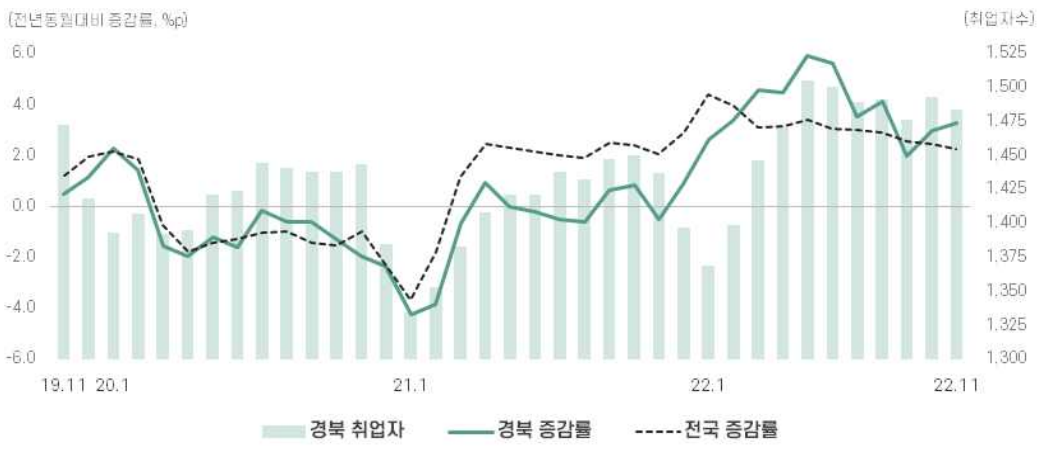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3만 3천 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만 8천 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9천 명) 증가, 제조업(−2만 2천 명) 감소
- 전년동월대비 9대 광역도 취업자 증감률 중 경북(3.3%)은 제주(5.9%), 충남(3.9%), 경기(3.5%)에 이은 4번째 상승폭 기록

✓ 취업자 중 제조업은 27만 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3% 하락,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21만 2천 명으로 보합

취업자수

(단위 : 천 명, %)

2021	2022						
연간	05	06	07	08	09	10	11
1,410	1,505	1,501	1,489	1,491	1,476	1,493	**1,484**
(−0.6)	(5.9)	(5.6)	(3.5)	(4.1)	(2.0)	(3.0)	**(3.3)**



주 : ( )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한 사람(취업자)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실업자)

★ 취업자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자

고용률은 63.8%로 전국평균 상회, 실업률은 2.0%로 전국평균 하회

✓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1.6%p 증가한 63.8%로 전국평균(62.7%) 상회

- OECD기준(15~64세) 고용률은 68.6%로 전국평균 69.0%보다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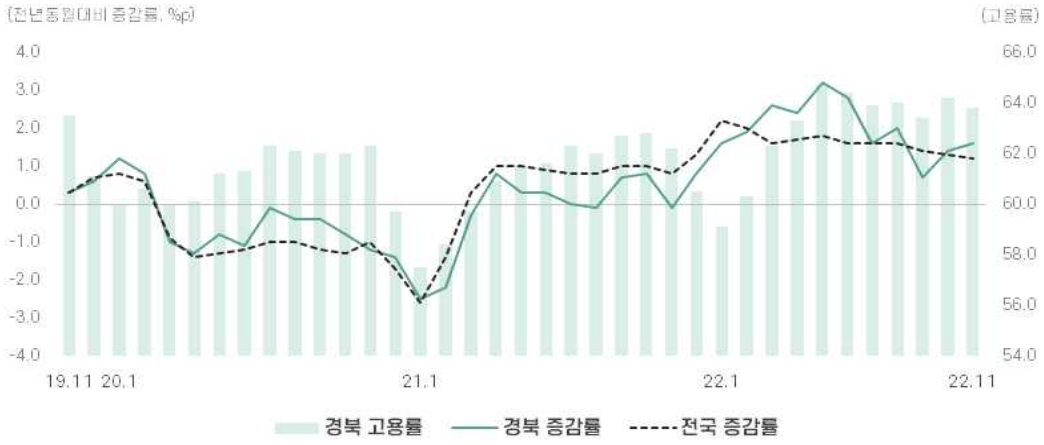
✓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4%p 증가한 2.0%로 전국평균(2.3%)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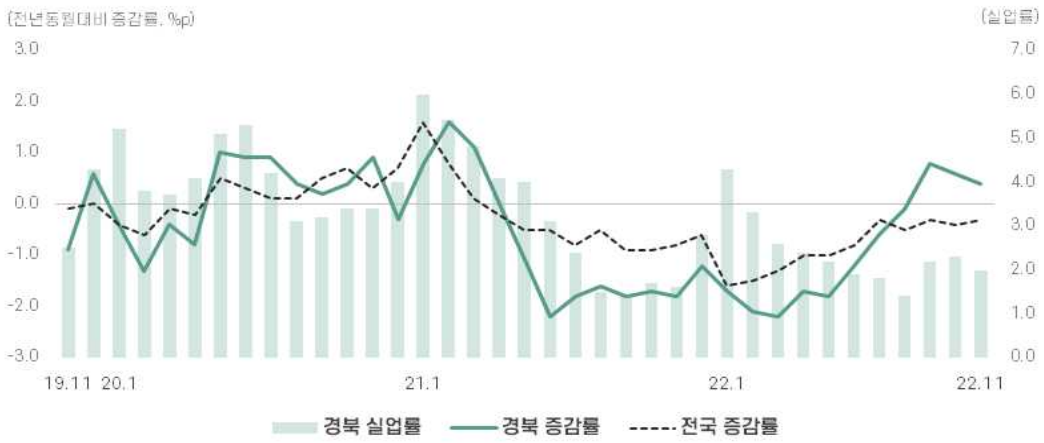
- 실업자는 약 3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 명 증가

고용률 및 실업률

(단위 : %, %p)

구분	2021	2022						
	연간	05	06	07	08	09	10	11
고용률	61.0 (−0.1)	64.7 (3.2)	64.4 (2.8)	63.9 (1.6)	64.0 (2.0)	63.4 (0.7)	64.2 (1.4)	**63.8** **(1.6)**
실업률	3.2 (−0.8)	2.2 (−1.8)	1.9 (−1.2)	1.8 (−0.6)	1.4 (−0.1)	2.2 (0.8)	2.3 (0.6)	**2.0** **(0.4)**





★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 인구) * 100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임금근로자수, 자영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 임금근로자수는 전년동월대비 2.7% 상승한 93만 명

- 임금근로자수는 전년동월대비 2만 5천 명 증가
-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수(2.7%), 임시근로자수(2.4%), 일용근로자수(3.9%) 모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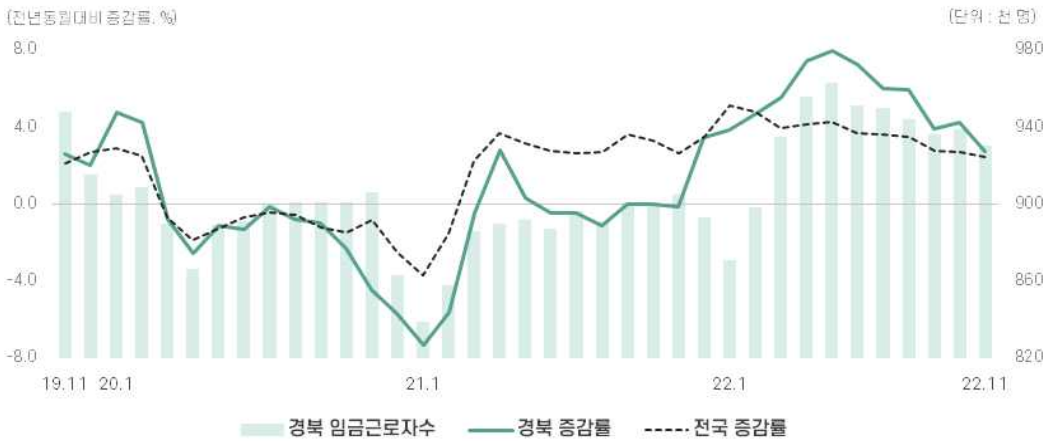
✓ 자영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6.4% 상승한 43만 1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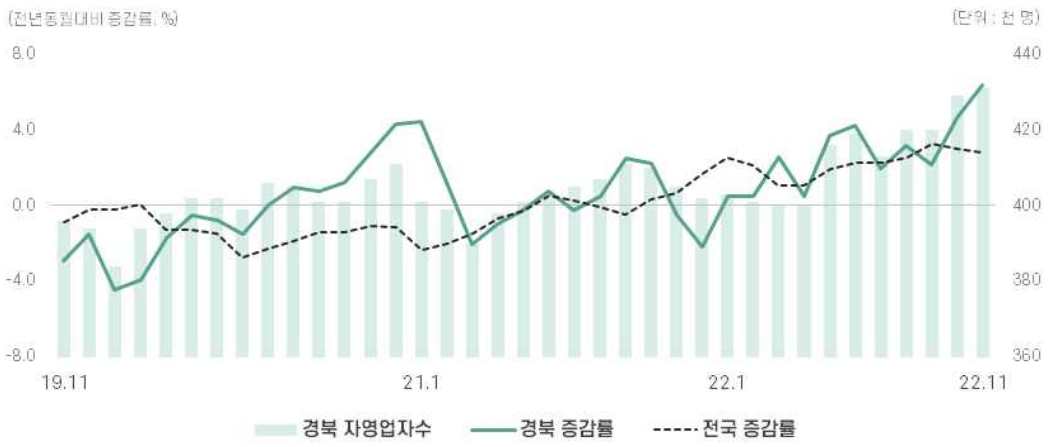
- 자영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2만 6천 명 증가
- 전년동월대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8.1%) 증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4.3%) 감소

임금근로자수 및 자영업자수

(단위 : 천 명, %)

구분	2021	2022						
	연간	05	06	07	08	09	10	11
임금근로자	887	963	951	950	944	936	939	**930**
	(−0.8)	(8.0)	(7.3)	(6.0)	(6.0)	(3.8)	(4.3)	**(2.7)**
자영업자	402	416	419	413	420	420	429	**431**
	(0.4)	(3.7)	(4.1)	(2.0)	(3.1)	(2.4)	(4.6)	**(6.4)**





★ **임금근로자**

: 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 **자영업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물가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5.3%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는 110.24로 전년동월대비 5.3% 상승, 전월대비 보합, 전국평균(5.0%) 대비 상회

- 전월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0.5%), 음식·숙박(0.5%), 오락·문화(0.9%), 기타 상품·서비스(0.5%), 가정용품·가사서비스(0.3%), 의류·신발(0.2%)은 상승, 교육, 통신, 주류·담배, 보건은 보합, 교통(−2.4%), 주택·수도·전기·연료(−0.1%)는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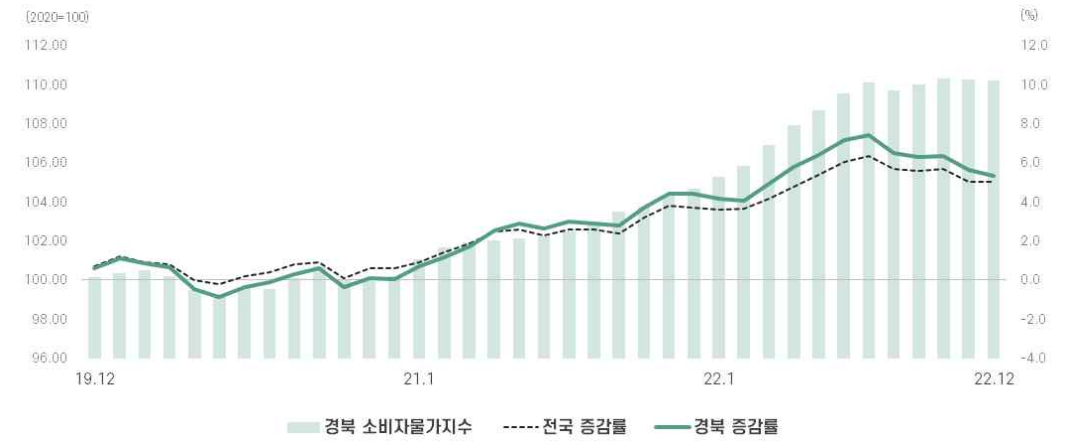
✓ 생활물가지수는 111.39로 전년동월대비 5.8% 상승, 전월대비 0.4%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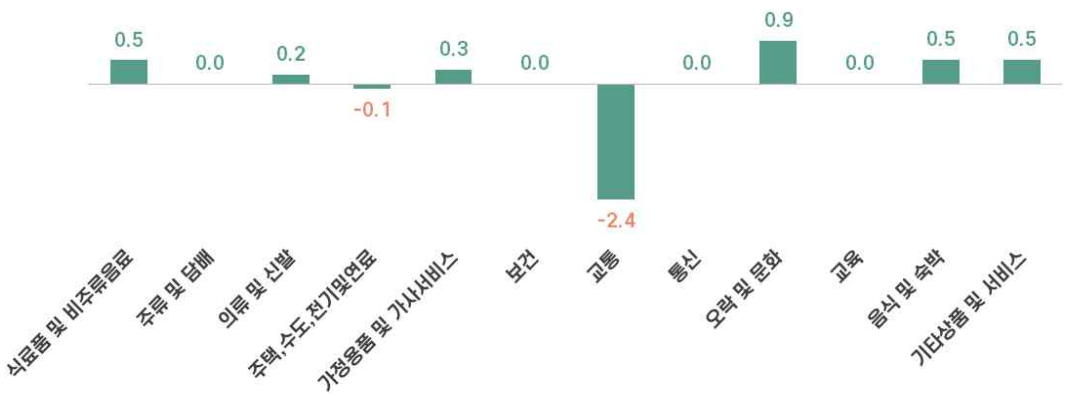
- 식품지수는 114.36으로 전년동월대비 6.5%, 식품이외는 109.46으로 5.2% 각각 상승

물가지수

(2020=100, 단위 : %)

구분	2021	2022						
	연간	06	07	08	09	10	11	12
소비자 물가지수	102.74 (2.7)	109.58 (7.2)	110.11 (7.4)	109.69 (6.5)	110.02 (6.3)	110.34 (6.4)	110.28 (5.7)	**110.24 (5.3)**
생활 물가지수	103.47 (3.5)	111.73 (8.5)	112.17 (8.8)	111.05 (7.1)	111.68 (6.6)	111.99 (6.7)	111.83 (5.8)	**111.39 (5.8)**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가격과 서비스요금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

★ 생활물가지수

: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

금융

10월 가계대출은 15.2조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5% 감소, 전월대비 0.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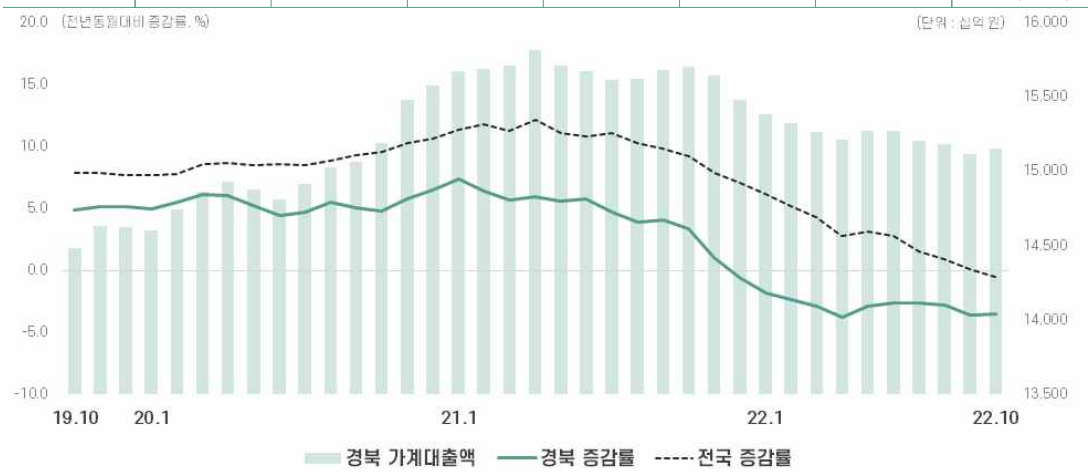
10월 가계대출 전년동월대비 감소, 주택담보대출 증가

✓ 총 대출액 50조 원 중 가계대출은 30.2% 차지

가계대출액

(단위 : 십억 원, %)

2021	2022						
연간	04	05	06	07	08	09	10
15,673	15,218	15,272	15,272	15,208	15,189	15,121	**15,155**
(4.4)	(−3.8)	(−2.8)	(−2.6)	(−2.6)	(−2.8)	(−3.6)	**(−3.5)**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

주택담보대출은 8.9조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5%, 전월대비 1.3% 각각 증가

✓ 총 가계대출 15.2조 원 중 주택담보대출은 57.8% 차지

주택담보대출액

(단위 : 십억 원, %)

2021	2022						
연간	04	05	06	07	08	09	10
8,680	8,627	8,691	8,734	8,757	8,782	8,801	**8,912**
(−0.5)	(−1.0)	(0.3)	(1.6)	(2.3)	(2.6)	(1.6)	**(2.5)**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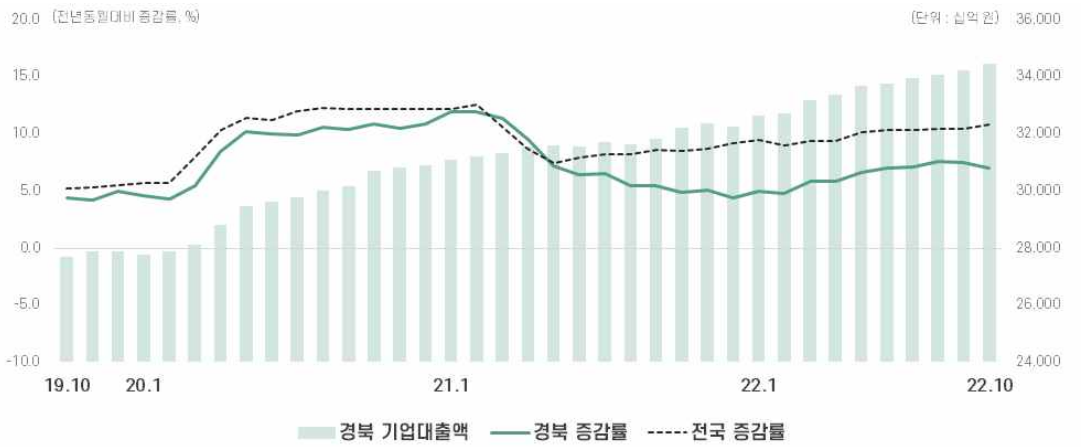
기업대출은 34.4조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0%, 전월대비 0.6% 각각 증가

✓ 총 대출액 50조 원 중 기업대출은 68.7% 차지

기업대출액

(단위 : 십억 원, %)

2021	2022						
연간	04	05	06	07	08	09	10
31,702	33,398	33,707	33,764	33,972	34,065	34,225	**34,447**
(7.4)	(5.8)	(6.6)	(7.0)	(7.1)	(7.6)	(7.5)	**(7.0)**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

부동산

11월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11월 아파트매매지수 전년동월대비 0.8% 하락

✓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3% 상승, 전월대비 0.5% 하락한 102.5

- 구미(−0.8%), 포항(−0.4%), 경산(−2.4%) 모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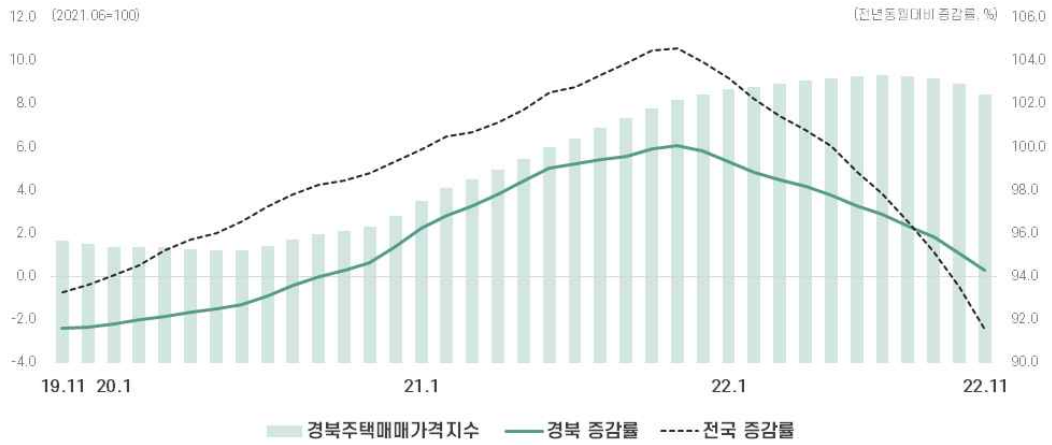
✓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6% 상승, 전월대비 0.4% 하락한 1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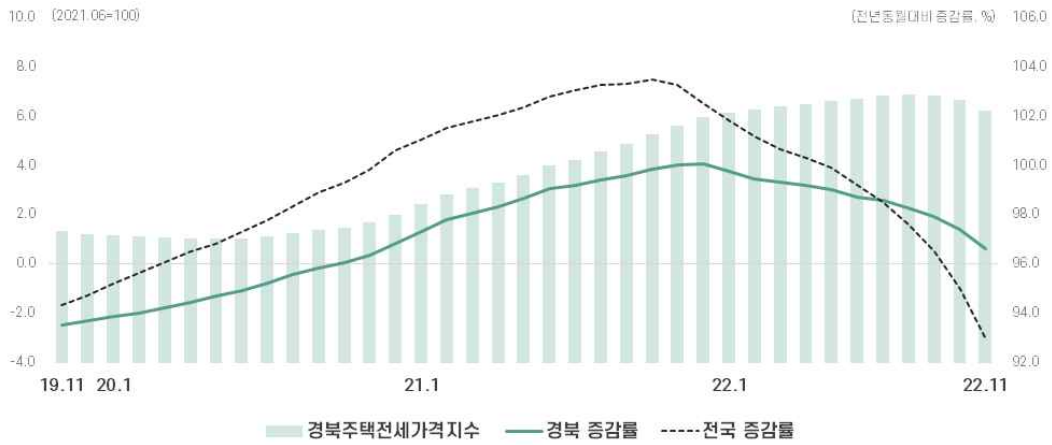
- 구미(0.3%), 포항(1.5%)은 상승, 경산(−1.5%)은 하락

주택가격지수

(2021.06=100, 단위 : %)

구분	2022							
	04	05	06	07	08	09	10	11
매매	103.1 (4.2)	103.2 (3.8)	103.3 (3.3)	103.3 (2.9)	103.3 (2.4)	103.2 (1.8)	102.9 (1.1)	**102.5** **(0.3)**
전세	102.5 3.2	102.6 3.0	102.7 2.7	102.8 (2.6)	102.9 (2.3)	102.8 (1.9)	102.7 (1.4)	**102.2** **(0.6)**





주 : ( )는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하락, 아파트전세가격지수는 상승

✓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0.8% 하락, 전월대비 1.0% 하락한 102.7

- 안동(3.2%)은 상승, 경산(−3.5%), 구미(−1.6%), 포항(−1.5%)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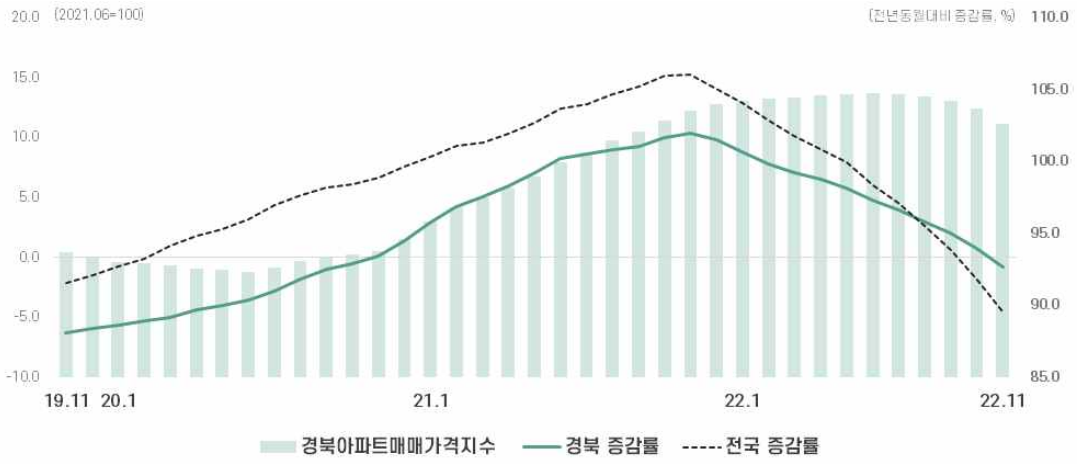
✓ 아파트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0.9% 상승, 전월대비 0.8% 하락한 1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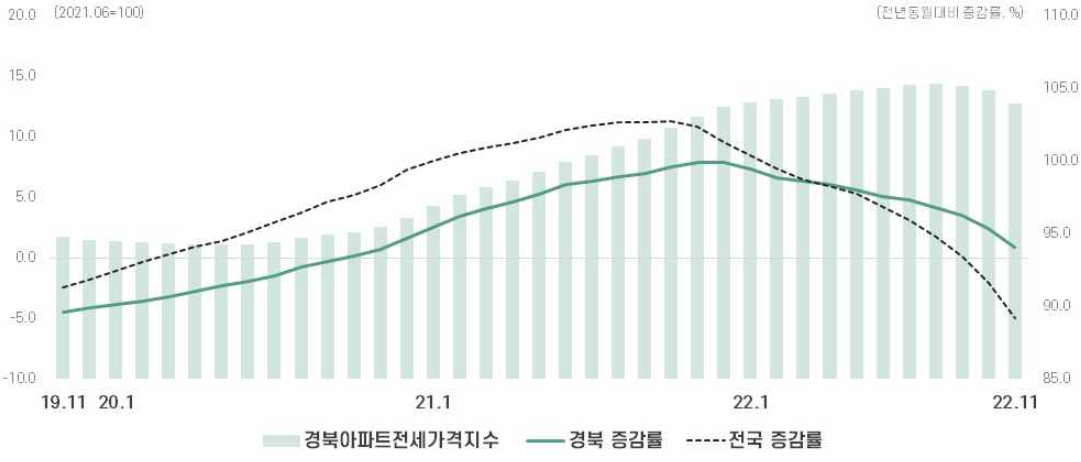
- 안동(4.0%), 포항(2.1%), 구미(0.1%)는 상승, 경산(−2.1%)은 하락

아파트가격지수

(2021.06=100, 단위 : %)

구분	2022							
	04	05	06	07	08	09	10	11
매매	104.6	104.7	104.8	104.7	104.5	104.2	103.7	**102.7**
	6.5	5.8	4.8	(4.0)	(3.0)	(2.1)	(0.8)	**(−0.8)**
전세	104.7	104.9	105.1	105.3	105.3	105.2	104.9	**104.0**
	6.1	5.7	5.1	(4.8)	(4.2)	(3.6)	(2.5)	**(0.9)**





주 : ( )는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시군별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지수 증감률



아파트 매매 아파트 전세

주택매매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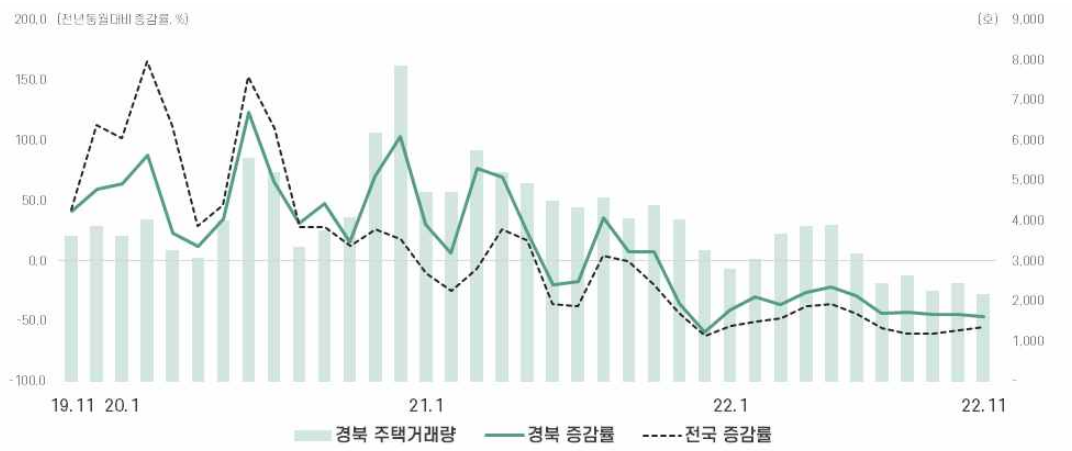
✓ 주택매매거래량은 2,174호로 전년동월대비 46.0% 감소, 전국도 감소(−55.0%)

- 포항(−55.8%), 안동(−52.5%), 구미(−52.0%), 경산(−44.3%) 주택매매거래량 모두 감소

주택매매거래량

(단위 : 호, %)

2021	2022						
연간	05	06	07	08	09	10	11
54,157	3,887	3,203	2,454	2,644	2,271	2,440	**2,174**
(0.0)	(−21.5)	(−28.7)	(−43.3)	(−42.2)	(−44.2)	(−44.6)	**(−46.0)**



주 : ( )는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

미분양주택은 7,667호로 전년동월대비 379.8% 증가, 전월대비 20.4% 감소

✓ 미분양 주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포항(3,447호), 경주(1,458호), 경산(738호), 김천시(561호) 순

중소기업

11월 어음부도율은 0.31%

11월 어음부도율 전국대비 상회

✓ 어음부도율은 전년동월대비 0.23%p, 전월대비 0.01%p 각각 감소

- 전국 어음부도율은 0.16%이고, 충남(1.04%), 충북(0.73%), 경남(0.58%), 경북(0.31%) 순

✓ 부도업체수는 전년동월대비 1개, 전월대비 2개 각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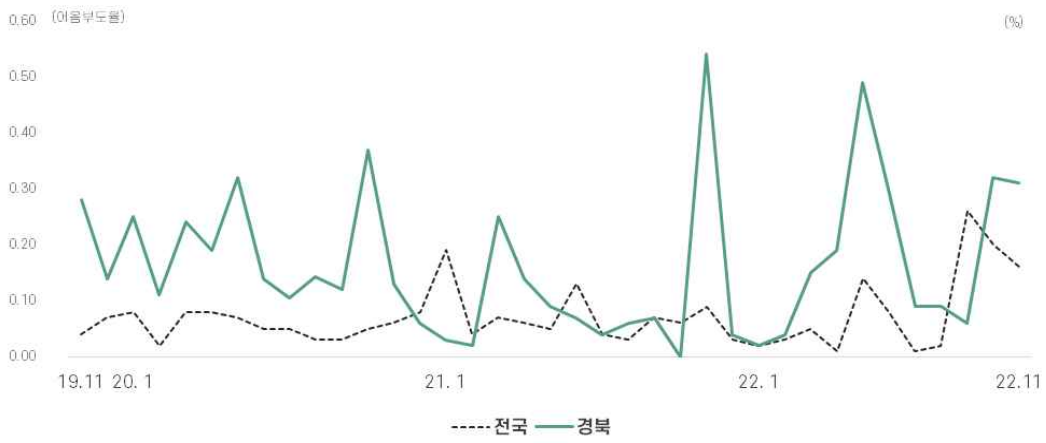
- 총 부도금액은 58.4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2.1억 원 감소

10월 신설법인수는 전년동월대비 67개, 전월대비 4개 각각 감소한 255개

어음부도율, 부도업체수, 신설법인

(단위 : %, 개)

구분	2022							
	04	05	06	07	08	09	10	11
어음부도율	0.19	0.49	0.30	0.09	0.09	0.06	0.32	**0.31**
부도업체수	0	2	0	1	0	0	3	**1**
전년동월대비	−1	1	−1	1	0	0	3	**−1**
신설법인수	325	303	300	307	308	259	**255**	−
전년동월대비	3	23	−76	9	5	−19	**−6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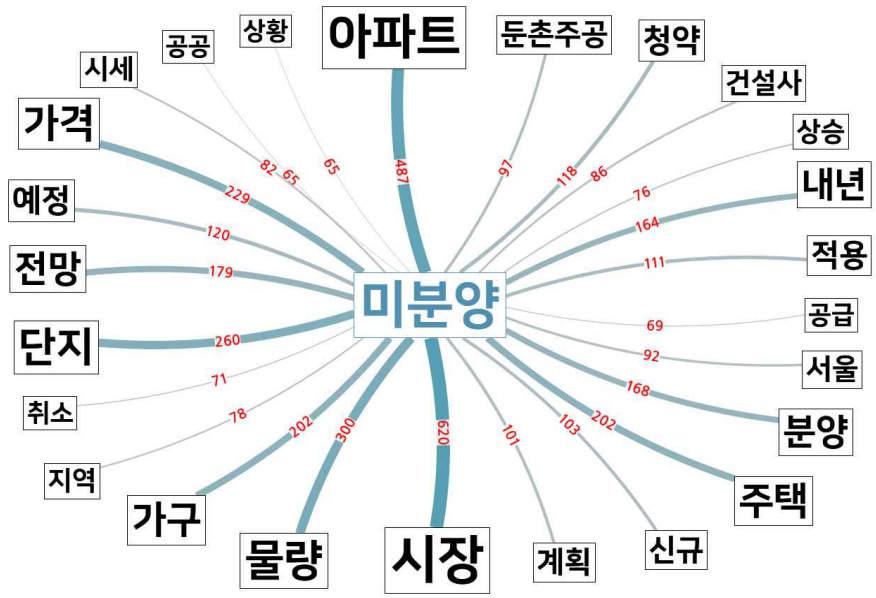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어음부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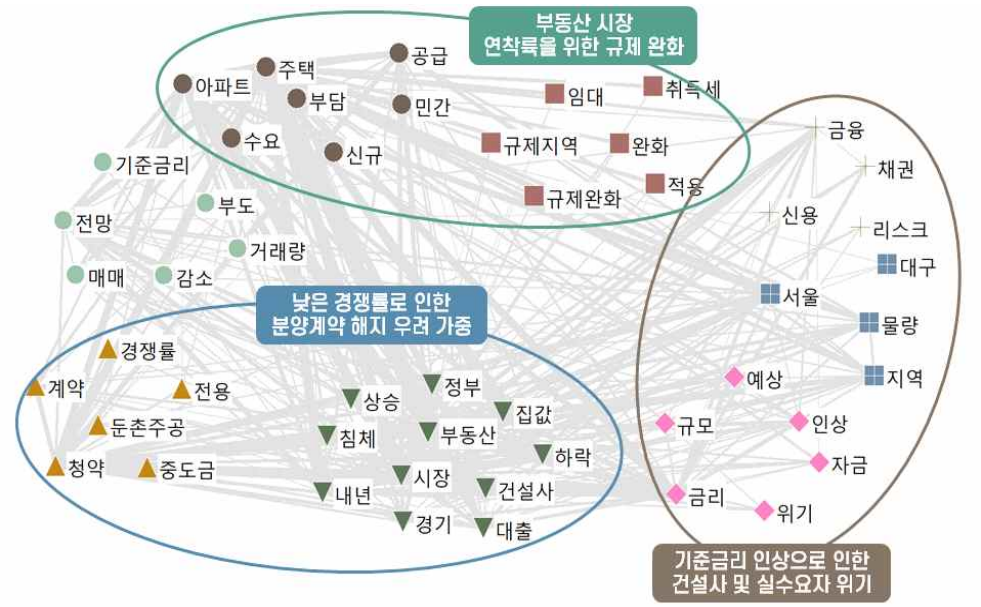
: 일정 기간 동안 어음결제소에서 거래된 총 교환금액 중에서 잔고 부족으로 인해 부도난 어음부도액의 비율

경제분야 키워드 BIG DATA

미분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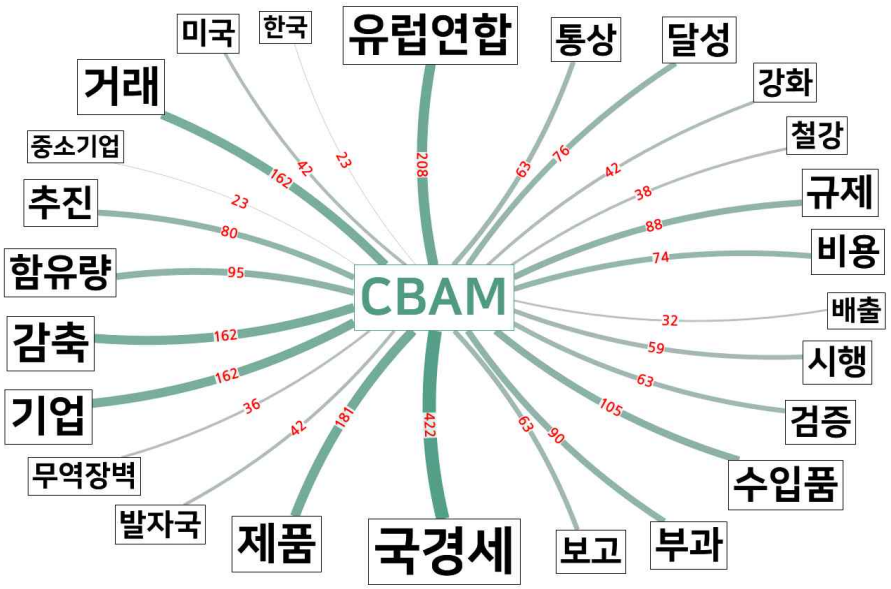


주요 단어 : 아파트(487), 물량(300), 전망(179), 청약(118), 둔촌주공(97) 등 공급 대비 수요 부족에 따른 미분양 사태 확대에 관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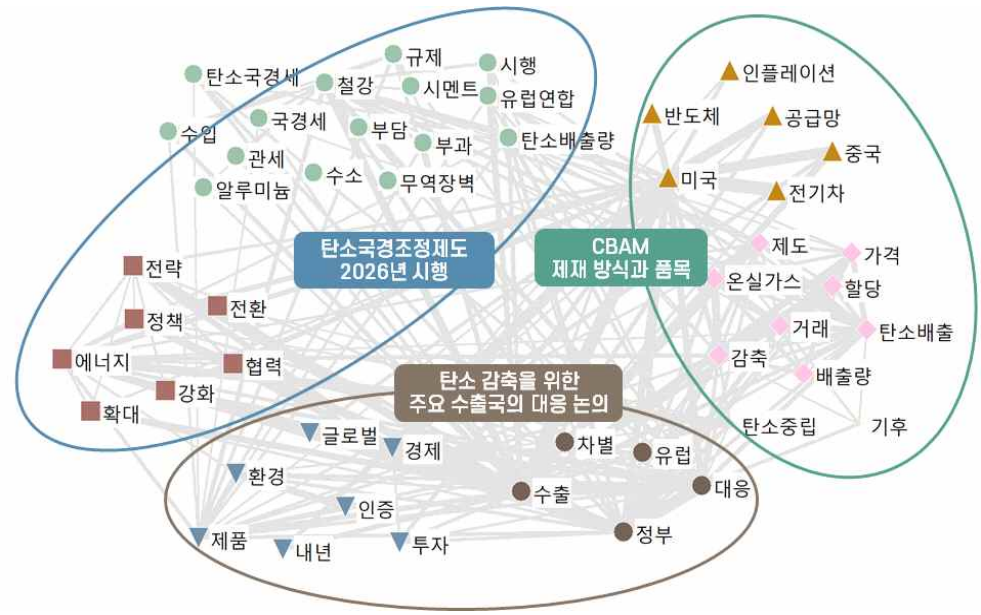


주요 주제 : 기준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대출금리 부담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 하락, 그에 따른 신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 하락 등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

CB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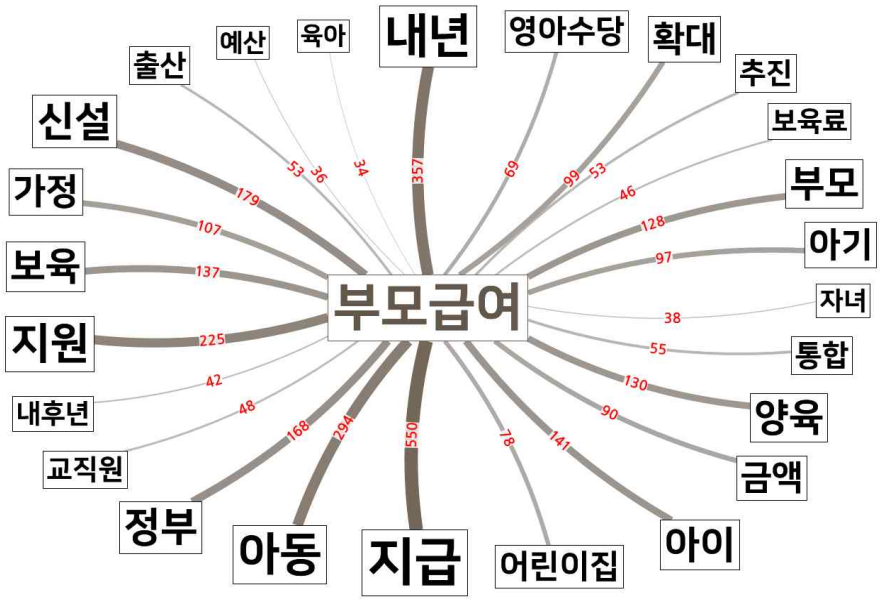


주요 단어 : 국경세(422), 유럽연합(208), 감축(162), 수입품(105), 달성(76) 등 미국에 이은 유럽연합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관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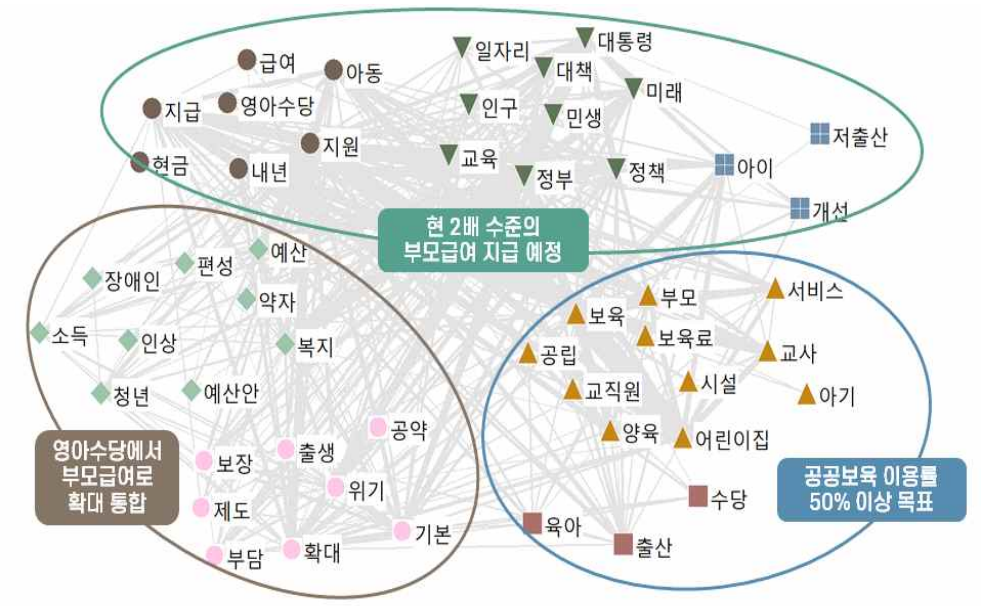


주요 주제 : 탄소 관세 개념인 CBAM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수출품의 경쟁력 약화 우려, 탄소를 줄여 저탄소 생산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 등 논의

부모급여



주요 단어 : 지급(550), 내년(357), 아동(295), 신설(179), 영아수당(69) 등 내년부터 영아수당을 통합·확대한 부모급여 및 복지 예산에 관한 내용



주요 주제 : 현 2배 수준의 부모급여 지급 결정과 공공부육 이용률 50% 이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립 보육, 어린이집 확대 등을 통한 저출산 극복 방안 마련

※ 분석 기간 : 2022년 12월 1일 ~ 2022년 12월 26일
(상단) 연관어 분석 : 주제어와 동시출현한 단어를 등장 빈도에 따라 시각화한 기법
(하단)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분석 : 각각의 범주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문맥 속에서의 역할에 따라 군집별로 묶어 의미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네트워크 분석 기법

이달의 이슈 BIG DATA

01 지역 6대 과학기술 동향

☑ 대구연구개발지원단

○ 본 내용은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DTIS) Monthly Pick에서 다룬 분야별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재정리한 것입니다.

○ DTIS Monthly Pick은 과기부 대구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6대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하여 매월 동향분석 전문가 워킹그룹에서 선정한 보고서를 통해 과학기술 관련 현안·이슈 등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연계성·활용성 관련 의견을 제시함으로 지역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미래성장동력 신사업 발굴·기획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DTIS, www.dtis.re.kr).

1. 과학기술정책 :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배경

○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은 단순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와 산업, 나아가 외교·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며, 최근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전략기술의 경쟁력은 향후 국가 명운을 좌우

- 주요국은 10~20개 전략기술을 선정하여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법률제정 및 조직 신설 등 과학기술 거버넌스 강화

○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 구도 속에 유망분야를 쫓아가는 기술 정책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국가 간 경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는 전략기술을 확보를 위해 역량결집이 필요한 시점

- 국가 핵심이익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공급망·통상-외교·안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택과 집중하는 기술전략 수립 필요

12대 국가전략기술

○ 2022년 11월, 정부는 기술 패권 경쟁구도 속에 경제·외교·안보적 전략적 가치를 종합,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 (혁신선도기술) ①반도체·디스플레이, ②이차전지, ③첨단 모빌리티, ④차세대 원자력
- (미래도전기술) ⑤첨단 바이오, ⑥우주항공·해양, ⑦수소, ⑧사이버보안
- (필수기반기술) ⑨인공지능, ⑩차세대 통신, ⑪첨단로봇·제조, ⑫양자

○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도출하여 기술군 유형과 기술 수준에 따라 단기-중장기 기술개발 방향 및 전략 제시

- 도출된 세부 중점기술은 임무지향적 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기술수준평가 등 국가적 분석대상의 기술단위로 관리

집중육성 방안

○ 임무지향 전략로드맵 기반 정책·투자지원 집중

- 국가차원 임무와 기술개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임무지향적 로드맵 수립, 예산·제도 혁신 등을 통해 전략적 투자를 강화
- 전략로드맵을 토대로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등 핵심사업에 R&D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임무기반 통합형 예산배분방식 도입

○ 인재·국제협력·산학연 거점 등 전략기술 육성기반 확충

- 기술수준·특성별 맞춤형 핵심인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 협력을 통해 계약정원제 도입, 학·석사 연계 패스트트랙 확산 등 추진
- 공공연·대학 등의 전략기술 연구거점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기술 허브(hub)를 구축하여 전략기술 확보에 산학연 역량 결집

○ 기술패권 국가전략 총괄 추진체계 확립

- 정부·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략기술정책기획 및 기술별 전략수립을 위한 지원기관 확충
- 전략기술 지정·관리체계 구축 등의 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술 간 역할 분담·협업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관계부처 합동, 2022)>

2. 바이오·헬스 : 미국·유럽 세포·유전자치료제 혁신연구 지원정책

배경

○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는 '20년까지 연평균 10% 이상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21년 매출 상위 20개 의약품 중 바이오의약품이 14개로 글로벌 제약산업은 합성의약품에서 바이오의약품으로 구조 재편

- '21년 5월 기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파이프라인 중 바이오의약품은 약 56.8%를 차지,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바이오의약품 중 세포·유전자치료제는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여 희귀·난치병을 치료하고 미충족 의료수요(Unmet needs)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

-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는 세포의 생물학적 특성을 변화시키거나 유전자의 결함·부작용을 억제함으로써 희귀·난치성 질환의 근원적 접근이 가능하고 기존 치료법에 비해 표적 정확성이 높아 암, 희귀질환 등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

○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과 확산은 개별 기업 수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이므로 정부를 비롯한 산학연 등 다양한 관계자의 공동 접근과 기술적 비기술적 요소를 포괄하는 혁신활동 지원 필요

- 치료제의 주된 적응증인 희귀·난치성 질환은 환자군 크기가 작고, 기존 승인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원(기술력, 자금 등)과 제도적(인허가, 수가 등) 측면에서 실패 확률이 높아 대규모의 집중 지원과 산·학·연·병·관 등의 광범위한 협력 필요

지원정책

○ 미국은 보건·의학 분야의 중장기적인 활동이 필요한 고위험, 고비용, 도전적 연구 추진을 위해 NIH(미국립보건원) 산하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설립

- 암, 알츠하이머 등 특정 질병의 미충족 수요 등에 대응하고 기존 연구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활동을 집중 지원
- 특히, 세포·유전자치료제 및 기반기술 개발 등 중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치료법과 관련 플랫폼까지 광범위 지원

○ EU는 Horizon Europe를 통해 혁신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위험·도전 연구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 혁신위원회(EIC, European Innovation Council)를 신설하여 세포·유전자치료제를 핵심 분야로 혁신연구 지원

- 기초·원천연구를 지원하는 EIC Pathfinder 프로젝트를 통해 '21년부터 세포·유전자치료제 분야에만 약 2,900만 유로를 투자, '22년부터는 복합/희귀 유전질환에 대응하는 RNA 기반 치료·진단 분야를 집중 지원 중
- 세포치료제 기술, 세포요법(CAR-T, TCR, TIL 등) 개선, 유전자 벡터의 효율성 개선 및 위험 감소, 유전자치료제 제조공정 등 세포·유전자치료제의 기초기술 및 임상연계 고도화를 위한 도전연구도 지속적으로 지원

민관협력 프로그램

○ 미국은 희귀질환 치료용 유전자 치료제·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민관 연구프로그램인 맞춤형 유전자치료제 컨소시엄(BGTC)을 출범하고 기술개발과 함께 개발 프로세스 효율성 제고와 개발 단계의 장애요소(자금, 제도) 극복 지원

- 5년('21~'26년)간 정부·민간·공공에서 총 8천만 달러를 투입하여 기초연구, 임상연구, 제조·생산 및 규제 개선까지의 유전자치료제 및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전주기 지원
- 바이든 정부는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규제 간소화를 통해 R&D를 적극 지원

○ EU는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치료제품의 개발을 집중지원하기 위한 다국가·다기관 협력 연구프로그램(ARDAT)과 유럽 9개국, 27개 기관이 참여하는 다국적·다학제 컨소시엄인 T2Evolve 운영

- ARDAT는 '20년부터 5년간 2,500만 유로를 투입, 총 34개 산학연 기관에서 세포·유전자치료를 포함한 첨단치료제품을 개발
- CAR-T 세포치료제 등 T세포 기반 면역항암제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T2Evolve 운영

<미국과 유럽의 세포·유전자치료제 혁신연구 지원정책 동향(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2>

3. 미래자동차(전기·자율·플라잉카) : 임베디드 인공지능 SW 기술맵

배경

○ 임베디드 인공지능 SW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지능(Industrial AI)을 산업기기의 센서·부품·장비에 내장하여 기존 하드웨어에 효율화 및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임베디드 SW 기술

- 디지털 뉴딜, 디지털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기반 기술로서 인공지능·빅데이터의 산업적용을 위한 핵심기술로 산업 전반 센서·부품·장비에 활용되며, 가치사슬은 '시스템반도체'-'임베디드SW'-'센서·부품·장비'-'시스템'

○ 산업부품·장비에 D·N·A기술을 내장하여, 데이터 실시간 처리 및 인공지능 제어기능·서비스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이 확대되고 있으며, 임베디드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능을 내장한 지능 부품·장비 개발단계에 진입

- 현재 고성능 멀티코어 AP를 활용한 고성능 지능형 SW기술이 적용,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내장 임베디드시스템 적용 확대 전망

○ 국내외 기업들은 자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지능화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인력 확보에 주력

- 삼성, 현대차,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 및 인력확보를 위해 기업의 사활을 걸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며, 지멘스, MS, NVIDIA 등 글로벌 선도기업은 인공지능 원천기술 확보와 산업 플랫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 확대

기술맵

○ (정의) 임베디드 인공지능 SW 기술맵은 향후 기술개발 투자를 통하여 확보해야할 임베디드 인공지능 SW의 정의, 역할 그리고 연관관계 등을 도출하여 기술개발 추진 방향 설정에 활용

○ (범위) 경량 임베디드 인공지능 엔진, 데이터 처리 모듈에서 응용 SW 및 개발환경 SW까지 임베디드 인공지능 SW의 모든 영역을 포함

- SW의 역할 및 응용분야에 따라 타 사업과의 연계를 포함하여 요구되는 기술을 넓게 포함함

○ (구성) 역할, 기술 범위, 목적에 따라 시스템 SW 기술, 응용 SW 기술, 개발환경 SW 기술로 구분

- 기존 임베디드SW 기술을 포함하되, 신규로 확보해야 할 임베디드 인공지능 기술 중심으로 기술맵을 구성하고, 향후 개발되어질 인공지능 가속 하드웨어를 감안하여 최적화 SW를 추가
- 신규 확보하고자 하는 경량 인공지능 기능을 시스템 SW, 응용 SW, 시험/검증 SW 부분으로 나누어 구분
- 기술과 인력 부족으로 임베디드 인공지능 SW 활용에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산업 이슈를 반영하여, 개발환경 SW를 추가

○ (기술맵 내용)

- (임베디드 인공지능 시스템 SW 기술) 산업 부품·장비의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응용SW를 구현하기 위한 임베디드SW 핵심기술로 기존 산업용 임베디드 HW 성능을 높이고, 다양한 인공지능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운영체제, 인공지능 라이브러리 등

※ 임베디드 인공지능 시스템 SW는 임베디드용 인공지능 HW지원 SW, 임베디드 OS SW 프레임워크, 임베디드 인공지능 SW 프레임워크, 차세대커널 시스템 SW, 임베디드 가상화 시스템 SW 등으로 구분

- (임베디드 인공지능 응용 SW 기술) 산업 지능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산업별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산업용 지능부품 및 장비에 적용 가능한 공통 기술로 로봇, 헬스케어 등 산업별 임베디드 인공지능 적용 사업화를 위한 지능부품·SW 기술 포함

※ 임베디드 SW 보안/신뢰성/표준, 실시간 경량 인공지능기반 인식/추론기술, 산업별 임베디드 인공지능 응용 SW 등

- (임베디드 인공지능 개발환경 SW 기술) 사업화 기술과 핵심요소기술을 더 쉽고 빠르며 정확하게 필요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이 필요한 기업에 공용 SW 개발도구 및 인증 등의 개발환경지원 기술로 인공지능 임베디드 SW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며, SW개발, 통합, 시험, 검증, 운영 등을 기술 범위로 설정

※ 최적 타겟 이미지 생성 도구, 임베디드 인공지능 SW 개발도구, 임베디드 인공지능 기능검증/성능시험 등

<임베디드 인공지능 SW 기술맵 동향(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21)>

4. 에너지(이차전지) :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

배경

○ 우리나라 이차전지 기업들은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 확보

- 금년 상반기 점유율은 중국(56.4%), 한국(25.8%), 일본(9.6%) 順이며, 非중국시장에선 우리 기업들이 과반(54.1%)을 점유하며, 독보적 위치 확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상은 '25년, 길게는 '30년까지 공고할 것으로 예상
- 향후 5년 이상의 투자가 대부분 확정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국내외 수주 물량은 560조원('21년 배터리 3사 매출액 18배)

○ 그러나, 최근 공급망 위기, 기술경쟁 등 대내외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의 모멘텀 마련 필요

- 배터리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이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되고 있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 배터리규정 시행 등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
- 중국은 자국시장에서 축적한 기술·경험으로 상용화 기술(삼원계 등) 추격, 일본은 차세대배터리에 집중투자하며 미래를 준비 중
- 국내 배터리 3사의 해외시장 진출은 양적 성장에 성공하였으나, 지속 성장을 위한 국내투자 확대, 인력양성, 소부장 육성 등 국내 생태계 경쟁력 제고 필요

혁신전략

○ 배터리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민·관 역량을 총결집한 배터리 얼라이언스 출범

- 기업들은 호주/캐나다/칠레 등에서 리튬·니켈을 우선 확보 중으로 정부도 순방, 고위급회담 등으로 기업의 장기공급계약 체결을 지원하여 IRA 요건 충족을 위해 수입 다변화 등을 추진
- 자원개발기관(광해공단, 포스코 등), 수요기업(배터리 3사, 소재기업), 제련기업(고려아연, LS MnM), 정책금융기관(수은, 무보) 등이 One-team을 구성하여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
- 정부는 광물 확보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매장량, 생산 및 거래상황 등을 반영한 핵심광물 지도 마련, 호주·칠레·캐나다 등과 양·다자 핵심광물 협력 프로젝트 발굴, 확보한 광물에 대한 제련, 공급 구매계약, 광산 개발, 제련설비 투자 등에 자금 지원

○ 지속 가능한 배터리 순환체계(closed-loop) 구축

- 글로벌 사용후배터리 시장은 '27년 21조 원으로 급성장(연평균 32%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배터리 시장 선점, 국내 자원의 최대 활용 위해 선제적인 제도 정비 추진
- 사용후배터리의 회수·유통·활용 등 민간이 주도하는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업계초안 마련('23년 상반기) 후, 법제화 검토
- 산업부·국토부·환경부 등은 배터리 제작-등록-운행·탈거-재사용·재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이력 정보 DB 구축
-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한 배터리 별도 등록·관리, 탄소배출량 평가기법 개발 및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마련 등 친환경성 평가·인증 등의 신산업 기반 마련

○ 배터리 첨단기술 혁신허브(Mother Factory) 구축

- 하이니켈 양극재(니켈 90%↑), 실리콘 음극재 기술개발, 삼원계外의 LFP, 非리튬계 등에 신규 투자하여 포트폴리오 다변화, 게임체인저가 될 큰 전고체, 리튬황, 리튬금속전지 중심으로 1,500억 원 규모의 신규 예타 추진을 통해 초격차 기술 확보
- 국내 기업들(배터리 3사 등)은 R&D 센터 및 최첨단 생산기지 국내 조성 등 19.5조원 규모의 R&D 투자로 핵심 경쟁력을 국내에 축적하여 최신 공정·소재 개발/적용의 중심지로 육성

○ 배터리 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국내 생태계 조성

- 민간은 '30년까지 50조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정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 등 전방위 지원
- 민·관 합동으로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등 '30년까지 1.6만 명 이상의 핵심인력 배출

<민·관 합동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산업통상자원부, 2022)>

5. 로봇 : 서비스 로봇 시장 및 기술 동향

배경

○ 서비스 로봇은 가정, 의료, 교육 등 기존 산업·제조 분야 외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전문적인 작업을 통해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으로 정의하며, 개인서비스 로봇과 전문서비스 로봇으로 구분

- 개인서비스 로봇은 인구 고령화, 장애인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비상업적 업무에 사용되는 로봇이며, 전문서비스 로봇은 인간을 대체하여 극한작업이나 인명 구조와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되는 로봇

○ 현재까지 서비스 로봇 시장은 가정용 청소 로봇과 개인용 교육 로봇이 주도해왔고 전문 서비스 로봇 시장은 물류 로봇, 의료 로봇, 국방 로봇 등이 주도해 왔으며, 향후 새로운 응용분야에서 유망한 시장 형성 기대

- 물류, 의료, 교육, 농림, 우주, 엔터테인먼트, 가사, 개인·노인 보조, 보안, 건설·철거, 해양 등 개인과 전문서비스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응용 분야에서 꾸준히 수요가 증가

시장동향

○ '20년 기준,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는 약 301억 달러 규모이며, '21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23.3% 성장하여 '26년 세계 시장규모는 1,033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

- '20년 기준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은 북미(39.8%)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다음으로 아시아(27.7%), 유럽(22.4%) 등의 순

○ 응용 분야별로는 '21년 기준 가정용 서비스 로봇이 가장 큰 비중(25.6%)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의료용(17.3%), 방위·구조·보안용(11.6%), 농업용(10.6%), 물류용(9.4%) 등의 순

- '21년에서 '26년까지 서비스 로봇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는 연구 및 우주 탐사 분야(추정 연평균 성장률 46.5%)이며, 물류(35.4%), 점검 및 유지관리(34.9%)가 그다음으로 전망

○ 국가별로 시장 점유율은 북미(39.7%, 144억 달러), 아시아(28.4%, 103억 달러), 유럽(22.3%, 81억 달러) 순

- 북미는 연평균 22.9% 성장으로 '26년 404억 달러를 예상, 아시아 시장은 24.9%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21년 기준 시장규모는 미국이 108억 달러로 북미 시장의 약 76% 차지, 유럽은 독일(21억 달러), 영국(18억 달러), 프랑스(17억 달러) 순이며, 아시아는 일본 28억 달러, 한국 13억 달러, 인도 9억 달러 규모 기록

기술동향

○ 텔레프레전스(Telepresence) 로봇 및 휴머노이드 로봇의 성장

- 텔레프레전스 로봇은 원격의 장소에서 이용자가 로봇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하는 로봇으로 학교, 병원 등에서 활용 가능하며,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과 닮은 외모로 사용자 수용도와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헬스케어, 교육분야 수요 활발

○ 로봇과 인공지능(AI)의 결합

- AI 로봇은 인간의 개입 없이 반복작업을 배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이나 로봇과 통신할 수 있는 AI 기술과 통합된 로봇으로 '18~'23년간 연평균 28.8% 성장이 기대, iRobot, Dynamics 등 글로벌 로봇 기업에서 상용화에 주력하며 급성장 중

○ 로봇용 표준 운영체제(OS) 연구

- 로봇용 표준 OS는 손쉬운 로봇 제어 인터페이스, 개발자 커뮤니티,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며, 오픈소스인 ROS(Robot Operating System)가 가장 대표적인 운영체제

○ 서비스로서의 로봇(Robot-as-a-Service)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

- 로봇 최종 사용자가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로봇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로봇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로봇을 임대하는 모델이 성장

<서비스 로봇 시장 및 기술 동향(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1)>

6. ICT·SW :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

배경

○ 전 세계적인 디지털 트윈 전환(Digital Twin) 가속화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트윈을 통해 산업 활성화 및 新시장 창출, 제도개선과 표준화 등을 통해 전 세계적 흐름인 디지털 전환 선도

- 디지털 트윈은 실제 사물의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한 쌍둥이(Twin)를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현실과의 동기화 시뮬레이션을 거쳐 관제·분석 등 해당 사물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기술
-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하며, 의사결정을 위한 비용·기간 단축 및 위험 사고 예방, 탄소배출량 감소 등에 기여

○ '20년 글로벌 시장은 3조 5천억원 규모, 국내 시장은 약 690억원 수준으로 소규모이나 연평균 70% 수준 고성장

- 주요 국가들은 이를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기술로 선정하여 구체적 성장전략을 추진 중
-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으로 수요 확대 중이며, 중소기업은 공간정보 등 요소기술의 공급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추세

활성화 전략

○ 산업 성장기반 조성

- (3D 객체 데이터 구축·개방) 폭넓은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민간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3D 객체 제작을 지원, 오픈 플랫폼 등 데이터 공유·유통체계를 통해 제공·확산
- (시뮬레이션 SaaS 개발·실증) 외산 SW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시나리오형 모의실험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SaaS의 개발 및 국내·외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한 연동·실증 지원을 통해 디지털 트윈의 개발 기반 강화 및 판로 개척
- (3D 공간정보) 전 국토의 고품질 3D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디지털 트윈 공통 활용기반 조성 및 표준 행정모델의 구축 및 확산

※ 전국 3D 지도, 정밀도로지도, 지하공간 통합지도 등을 구축하고 국가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 대규모 선도 시장 창출

- (주력산업 경쟁력 향상) 소재·부품·장비 공정 최적화, 선박-항만-육상 물류 흐름 효율화,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맞춤형 정밀의료 지원 등 제조·물류·건설·의료 등 주력산업에 트윈 서비스를 적용하여 생산 및 운영 효율화 추진
- (국민 안전 강화) 수재해 피해 최소화, 시설물 안전 강화, 공공 시설물 및 작업환경 안전 체계 구축 등 각종 재난피해와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트윈 기반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 (탄소중립 사회 전환) 디지털 트윈 통한 풍력 발전기 생산성 향상 등 친환경 에너지 창출 최적화,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탄소배출 감축, 도시 내 교통·운송 효율 개선 등 탄소중립 실현

○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국내외 기술 수준 및 미래 전망을 분석하여, 산업·사회별 기술 수요를 발굴하여 핵심기술 확보전략 및 세부과제를 도출하여 미래 응용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발전 단계·분류별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
- (핵심 기술·다부처 협력기술 개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의 우위를 위한 디지털 트윈 미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민간 신산업 창출 수요를 반영한 산업별 응용 R&D 지원을 위한 다부처 협력 중·대형 R&D 과제 발굴

○ 표준화 및 법·제도정비

- (표준화) 용어·모델·평가지표 등 디지털 트윈 구축 기반·도메인별 서비스 Usecase 및 상호운용을 위한 표준 개발
- (연계) 공간정보·건물·행정 등 트윈 서비스에 필수적인 데이터의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표준 수립, 상호 연계 서비스 모델 설계
- (법·제도 정비) 디지털 트윈 관련 법·제도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정비하고, 신기술 활용 법적 기반 마련
- (범부처 민-관 협업 거버넌스 구축) 과기정통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디지털 트윈 주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력 거버넌스(디지털 트윈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등) 체계 및 데이터 표준화 등 분야별 민·관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현장 수요 반영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관계부처 합동, 2021)>

02 2022년 대구·경북 주택시장 동향

☑ 윤종만 한국부동산원 부연구위원

전국 주택가격 동향

○ 2021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9.93%(11월 누계 9.62%)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한 반면, 2022년 11월 누계 변동률은 -2.75%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변동률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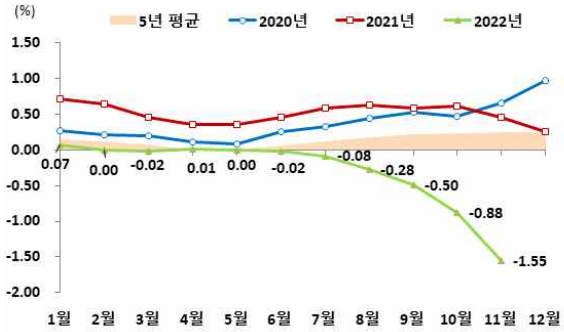
- 전국 주택 매매시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2021년 하반기 상승세 둔화가 시작되고 2022년 상반기 이후 하락세로 전환하여, 2022년 11월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1.37%
- 주택전세가격 역시 2021년 6.51%(11월 누계 6.25%)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변동률, 2022년 11월 누계 -3.22%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변동률

전국 주택매매가격 연도별 11월 누계 변동률



자료 :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추이



자료 :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

* 매매가격 변동률(11월 누계) : 전국 -2.75%, 수도권 -3.99%, 5대 광역시(인천 제외) -3.80%, 8개 도(경기 제외) -0.12%
* 전세가격 변동률(11월 누계) : 전국 -3.22%, 수도권 -4.77%, 5대 광역시(인천 제외) -4.32%, 8개 도(경기 제외) 0.00%

대구·경북 주택가격 동향

○ 대구광역시의 11월 누계 매매가격 변동률은 -6.4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9.95%) 다음으로 큰 하락폭을 나타낸 반면, 경상북도는 -0.01%로 다른 지역에 비해 하락폭이 작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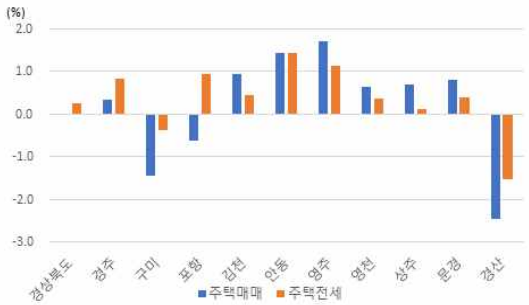
-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 상위 5개 지역 : 전북 1.31%, 강원 0.86%, 제주 0.39%, 전남 0.00%, **경북 -0.01%**
  * 하위 5개 지역 : 세종 -9.95%, **대구 -6.45%**, 인천 -5.49%, 대전 -4.80%, 경기 -4.39%
- 주택전세가격 변동률
  * 상위 5개 지역 : 전북 0.77%, 제주 0.50%, 경남 0.33%, **경북 0.25%**, 충북 0.07%
  * 하위 5개 지역 : 세종 -13.41%, **대구 -8.00%**, 인천 -6.57%, 대전 -5.79%, 경기 -5.13%

대구 지역별 주택가격 변동률(11월 누계)



자료 :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경북 지역(시)별 주택가격 변동률(11월 누계)



자료 :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

○ (대구) 수성구, 달서구 등 주택매매가격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모든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하였으며, 전세가격은 모든 지역에서 매매가격에 비해 더 큰 폭의 하락

○ (경북) 경산, 구미 등 대구 생활권 일부 지역과 포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약간 상승하거나 지난해 수준 유지

대구·경북 주택 공급 및 미분양

○ (주택 공급) 대구·경북의 준공물량은 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감소 추세이나 10월 누계 기준 지난해 대비 올해 소폭 증가하였으며,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착공물량과 때 착공~준공 2~3년의 시차를 감안하였을 때, 2023년에도 준공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미분양) 대구·경북의 미분양물량은 17.2천호로 2022년 10월 현재 전국 미분양 물량(47.2천호)의 36% 차지

○ 특히, 경북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21.12월 4.4천호에서 `22.10월 6.4천호로 2천호 증가한 사이 동기간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2.0천호에서 10.8천호로 10개월 사이 5배 증가하면서 대구·경북 미분양 물량 증가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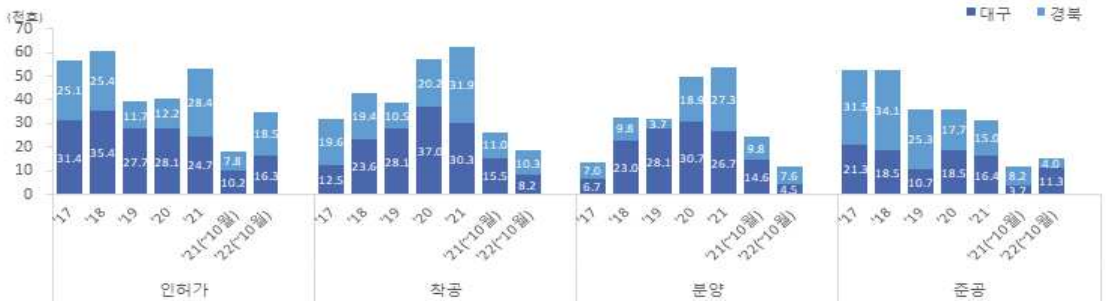
- (대구) 2022년 10월까지 분양물량이 18.2천호이고 동기간 증가한 미분양 물량이 8.8천호이므로 기존 미분양 물량의 일부 해소를 감안하면 2022년 분양 물량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이 미분양으로 남은 것으로 추정
- (경북) 경북의 미분양물량은 6천호 전후를 유지 중이며 주택시장이 과열되었던 2020년(2.2천호), 2021년(4.4천호)를 제외하면 과거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적은 수준으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상황

* 전국 미분양 : `17년 57.3천호, `18년 58.8천호, `19년 47.8천호, `20년 19.0천호, `21년 17.7천호, `22.10월 47.2천호

* 대구 미분양 : `17년 0.1천호, `18년 0.4천호, `19년 1.8천호, `20년 0.3천호, `21년 2.0천호, `22.10월 10.8천호

* 경북 미분양 : `17년 7.7천호, `18년 9.0천호, `19년 6.1천호, `20년 2.2천호, `21년 4.4천호, `22.10월 6.4천호

대구경북 주택공급 동향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 통계

종합

○ (주택가격) 급격한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공급 과잉 문제가 제기되었던 대구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경북의 2022년 주택가격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 다만, 경북지역 주택가격 역시 올해 하반기 이후 하락세로 전환하였고, 금리 등 거시경제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한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 (주택공급 및 미분양)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대구경북의 준공물량과 준공~착공의 시차를 감안하였을 때, 입주 가능한 준공물량은 2023년에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주택시장 침체와 과잉공급으로 올해 대구와 경북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전국 미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10월 현재까지 증가 추세이며, 특히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구 지역의 분양물량에 대한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

○ (종합의견) 대구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금리 등 거시경제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한 대구 주택시장의 침체는 지속될 가능성

- 주택매매시장 뿐만 아니라, 내년 대구·경북지역의 준공물량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리 인하의 신호가 없는 한 주택전세가격의 안정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03 코로나19 및 3高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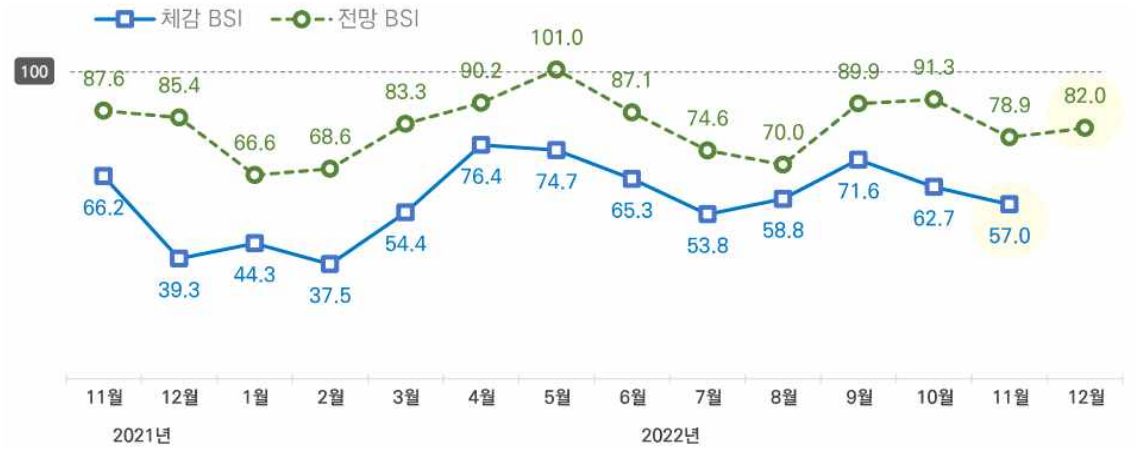
☑ 김영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운영지원팀장

소상공인 경기동향

○ 소상공인의 11월 체감 BSI는 57.0(전월대비 5.7p 하락), 12월 전망 BSI는 82.0(전월대비 3.1p 증가)

- 교육서비스업(+1.6p)은 전월대비 상승, 개인서비스업(−18.1p), 수리업(−13.9p), 스포츠 및 오락관련(−4.8p) 등의 순으로 전월대비 하락
- **대구(+1.3p)**는 전월대비 상승, **경북(−10.8p)**, 울산(−9.3p), 대전(-9.1p) 등의 순으로 전월대비 하락

소상공인 BSI추이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는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어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의 소득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해제 등을 통해 매출·소득의 증가를 기대하였으나 3高의 영향으로 실질소득 회복은 더 느린 경향

○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긴급경영자금 등의 부채를 늘려 매출감소 피해에 대응해 오면서 이들의 부채상환 부담과 신용 리스크는 매우 높아진 상황

-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개인사업의 대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소비 위축으로 매출 감소, 대출 증가로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
- 저신용·저소득 개인사업자의 대출이 크게 증가하여,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부채부담이 더욱 증가

3高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 고물가·금리·환율은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악화, 매출감소, 영업·이자비용 증가 초래 가능

○ 물가·금리·환율은 고용, GDP 등 다른 경제지표 등과 함께 소상공인, 가계, 기업에 유기적·복합적으로 상호 작용

○ (물가상승) 소상공인 영업비용 증가 및 매출 타격

- 원자재가격·인건비·임대료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은 증가하고 있고, 이는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위축 야기, 매출감소 초래하고 있는 실정
- 물가 인상이 될 경우 소상공인들은 소비자에게 자격 전가를 통해 손실을 줄이고자 함에 따라 소비자 체감이 높은 품목 중심의 물가상승 압박이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의 매출에 상당한 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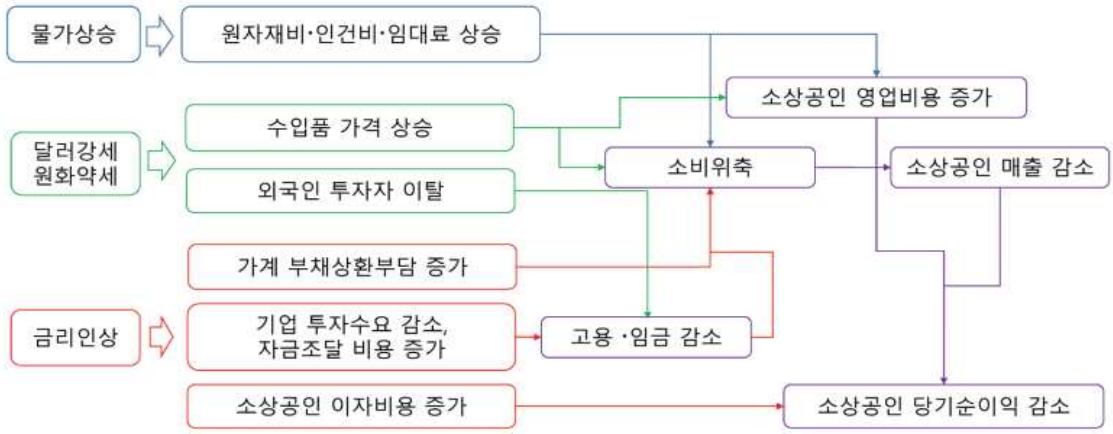
○ (금리인상)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가중·조달비용 증가·매출 감소

-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각종 금융지원 조치는 특히 만기연장, 상환유예 종료 시기를 앞두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소상공인 부채 상환에 부담으로 작용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상품의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가계의 상환부담도 가중, 소비지출 억제 유발로 소상공인의 매출에 부정적 영향 초래
- 금리인상은 투자자의 위험자산 회피와 투자수요 감소·조달비용 증가·수익창출 축소·고용 감소 등으로 기업 성장에 악재로 작용, 임금근로자 소득 감소 및 소비둔화를 촉발하여 소상공인 매출 감소

○ (원/달러 환율 상승) 소상공인 수입원자재 구입비용 증가, 매출 하락

-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입품,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더욱 상승시키고 이는 소상공인의 영업비용 증가로 비용 부담이 불가피
- 소비자 또한 수입에 의존하는 소비재의 물가상승 체감으로 소비심리 위축,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매출에도 부정적 영향, 임금근로자의 소득 감소는 다시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 초래
-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 기대는 외국 투자자의 환차손 우려로 인한 이탈, 기업의 자금 융통 어려움으로 소상공인의 주고객인 임금근로자 소득에 영향, 다시 소상공인 매출에 영향

3高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수록 내용 및 경북경제동향에 관한 문의는 대구경북연구원 경제동향분석팀 (☎ 053-770-5068)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총괄

- (책임연구자) 임규채 미래전략연구실장
- (참여연구진) 김용현 선임연구위원, 최재원 연구위원, 박민규 연구위원, 이승아 전문위원, 박효찬 연구원, 정혜경 연구원

○ 매월 발표되는 경북경제동향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및 대구경북연구원 홈페이지 정기간행물 경제동향분석에 제공되고 있습니다.